

1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531.66 (-29.49)	728.84 (-14.54)
금리 (연율)	환율 (원/달러)
2.901 (+0.012)	1395.10 (+8.70)

반도체 육성에 AI 필수... 상호의존에도 지원은 온도차

산업계, AI 기술중심 시장 재편 여당, '반도체특별법' 당론 발의 AI기본법 논의는 '거북이 걸음' 초적차 보완위해 함께 속도내야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인공지능(AI)법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11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면 AI 기술 및 관련 기업의 육성 또한 시급하다. 하지만 반도체 특별법 개정은 코앞에 놓여 있지만 AI기본법은 논의가 더딘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특별법과 AI기본법은 때려야 뭉 수 없는 관계다. 반도체는 AI 신기술의 핵심 하드웨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성능 반도체 확보 여부가 곧 AI 기술 발전 속도를 좌우하는 셈이다. 동시에 발전한 AI 기술은 반도체 개발 속도를 촉진하고 산업계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최근 AI를 중심으로 재편된 산업계 배경 또한 AI와 반도체 간 상관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며 AI반도체를 출현시켰다. AI와 반도체가 각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에서 개발이 이뤄지고 최종적으로는 둘을 결합한 형태로 나아간 것이다. 즉, AI기본법이 반도체특별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면 두 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게 차이난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1위 수출 품목으로써 세수이익에 크게 이바지 하지만

AI기술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AI기술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해외 AI기업들이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성과를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반도체특별법은 현재 개정안이 입법을 앞두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재정 지원 규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계속해서 수출액이 커지는 국내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직접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개발 속도에 불이 붙고, 글로벌 산업계의 큰 변동성 아래에서도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법안에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개발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대만의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8조원을 투자했는데, 일본 정부에서 4조원을 지원한 것으로 안다"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인센티브가 되고 있으니, 우리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의 의미를 설명했다.

반면 AI기본법은 현재 거북이걸음을 걷고 있다. 앞서 여야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과학 분야 민생현안을 챙겨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예산 증액과 AI기본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AI기본법은 현



전국으로 배부되는 수능 문답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사흘 앞둔 11일 세종시 한 인쇄공장에서 수능시험 문답지가 전국 시험지구로 배부되고 있다. /뉴스1

재까지도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AI기본법은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까지 나서서 입법을 촉구하는데에는 명확한 규제선 없는 개발이 이뤄졌을 때, 삼중 개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어서다.

또 AI가 전세계 산업계를 뒤흔들면서 기술 초적차가 곧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력에까지 이르는 만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지출 늘어나는데 소득은 '짊끔' 생계유지 위해 '또 대출' 악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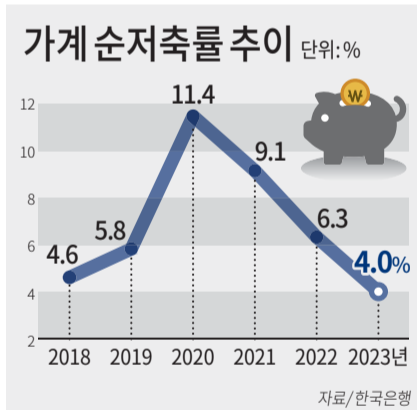
W 경제의 뒷 <下> 저축률 감소세

가계 순저축률 4.0%, 10년래 최저 물가상승에 소득 둔화·이자도 늘어 생계자금 고금리 2금융 대출 의존

#.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42세)씨는 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꾸준히 돈을 모으고 있다.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 대신 꾸준히 노후를 대비하려 했지만 최근에는 그마저도 쉽지 않다. 김모씨는 "물가가 오르면서 한달 식비가 60만원에서 80~9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며 "현금으로 해결하지 못해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월 상환액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가계의 저축여력을 엿볼 수 있는 '가계 순저축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의 소득에서 세금, 소비, 기타 지출을 제외한 금액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며 서민들의 재정적 여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순저축률은 전년 대비 2.3%포인트(p) 하락한 4.0%로 집계됐다. 이는 10년전인 2013년(3.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1



년 가계 순저축률이 9.1%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사이 급속도로 비중이 줄어든 셈이다.

◆ 물가상승... 소득 2.6% 증가할 때 소비 5% ↑

가계 순저축률이 감소한 요인으로는 우선 가계의 소득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가계 순저축률을 계산할 때 쓰는 가계소득(가계 순조정처분가능소득+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과 가계소비(가계 최종소비+정부의 사회적 현물이전)을 살펴보면 차이가 드러난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2022년 5.4% ▲2023년 2.6%로 크게 둔화한 반면 가계소비 증가율은 ▲2022년 8.8% ▲2023년 5%로 가계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美 증시 '트럼프 랠리'에 짐싸는 개미들

관세 강화 예고로 수출주 타격 '국내 주식 박스권 지속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미국 뉴욕증시가 '트럼프 랠리'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모습이다. 반면 국내 증시는 관세 정책 강화 예고로 수출주가 타격을 입으며 침체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달리 '트럼프 2.0' 시대에 국내 증시 부진 양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29.49포인트(1.15%) 하락한 2531.66을 기록했

다. 장초 강보합세를 보였으나 외국인 과 기관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며 곧바로 하락 전환했다. 코스닥 시장도 1.96% 하락하며 728.84에 장을 마쳤다. 국내 증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잠시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내 하락으로 전환한 모양새다.

반대로 미국 뉴욕 증시는 '트럼프 랠리' 효과로 최근 거래일인 지난 8일(현지시간) 기준으로 미국 3대 주가지수(S&P500, 다우존스산업평균, 나스닥)가 모두 신고가를 갈아 치웠다. 특히 S&P500은 올해만 50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시절, 코스피는 2016년 대선 당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3.48%까지 올랐으며, 3개월 후에는 S&P500과 코스피가 6%대 동반 상승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인 2017년 1월부터 임기말인 2021년 1월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50%, 56%가량 오르며 '트럼프 랠리'에 동승했다.

현재 두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상반된 이유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민주,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 "여론조사 조작 수법 설명" /사진 뉴스1
▲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검찰 압박법' 다시 속도

▲ 이재명 "민생 핵심은 기업 활동" 손경식 "상법개정안 기업 위축시켜"
▲ 8년 만에 골프채 잡은尹... '골프광' 트럼프와 '버디' 될까



▲ 윤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 위해 전향적 노력 해야"
▲ 우원식, 트럼프에 축하 서한... "한미동맹 더욱 발전 확신" /사진 뉴스1

경총, 노동유연성 제고·노사관계 선진화 등 숙원 전달

이재명 “자칫, 노동환경 후퇴할 수도… 합리적 영역 찾아야”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나 노동유연성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 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경영 안전성 제고 등 기업의 숙원 사항을 청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총의 건의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영역을 찾아서 타협하는데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경총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오늘날 우리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저출생과 고령화는 물론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헤쳐나가야 할 많은 난제에 직면했다”며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같은 첨단 분야에선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서 우리 주력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AI(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와 산업 구조의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노동시장의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정리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만나 간담회를 하기 전 경영계 건의사항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의 선택권 보장 및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반대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 및 국가 전략 기술 투자세액 공제 일몰 연장 ▲첨단 산업 직접 보조금 투자 ▲이사 충실 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반대 등을 건의했다.

이 대표는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경총의 건의 사항만 듣고 일방적으로 입법이나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경총에 오면 주로 노동 유연성 확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한다.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쪽에 속하는 것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면서도 어쩌면 수치스러운 일일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하나 예를 들면 엄청난 비용의 산재사망률, 산재사고율 이런 것도 국가적 수치일수도 있다”며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비중이 크진 않겠지만,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도 어차피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에 관한 문제도, 기업이 노동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임금은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것이 단기

적으로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길게 보면, 고용 불안 을 겪는 노동자들이 과연 기업에 소속감을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게 내 회사다. 내가 일한 성과가 크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시간만 때우면 된다. 어차피 나는 언제 내쫓길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비교하면 과연 어느 쪽이 나올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런데 이 양자를 조화시킬 필요는 있다. 정말로 꼭 필요한 영역들, 예를 들면 ‘집중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

한 영역들은 노동시간을 통제해놓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것은 노동자들 자신에게도 불리하다”라는 주장도 있다”라며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전체 제도를 통째로 바꿔버리면 이 제도가 잘못 사용돼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전체적으로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실 그런 주장은 해도 관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서로 섭섭하고 기분만 나쁘다. 실현 가능한, 정말 꼭 필요한, 합리적인 개선을 해내는 것, 그걸 누가 반대하겠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총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한 우려가 있었다. 이 대표는 실제로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업가치도 제고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라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기업의 배임죄 적용이라든지, 배당 소득 문제라든지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한 여러 조치를 통합적,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3분기 韓 GDP 0.1% 성장... OECD 16개국 중 11위

당초 시장예측치 0.5% 크게 빛나가 2분기 '역성장' 회의적 시각 반영된 듯 올해 성장전망치 2.4% 달성 어려울 것

우리나라는 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 경제성장률 국제 비교에서도 하위권에 밀려잡히 자리잡는 모습이다. 3분기 수치는 각국 집계가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중간 취합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6곳 중 11위에 처져 있다.

10일 OECD 집계에 따르면 한국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가 직전분기 대비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총 38개 회원국 가운데 수치를 발표한 곳은 16곳이다. 이 중 한국은 이날 기준 공동 11위로 내려앉았다. 성장률이 우리보

다 낮은 회원국은 현재 4곳뿐이다.

한국은 미국(+0.7%), 스페인(+0.8%), 멕시코(+1.3%) 등에 크게 뒤졌다. 이 밖에 리투아니아(+1.1%)와 코스타리카(+0.6%), 프랑스(+0.4%), 오스트리아(+0.3%), 체코(+0.3%), 독일(+0.2%), 포르투갈(+0.2%)에 비해서도 낮았다.

OECD가 평균 낸 유럽연합(EU)과 유로존 국가 수치도 각각 +0.3%, +0.4%로 한국에 앞서 있다. OECD 평균치에 또 못 미칠 전망이다.

3분기 한국 성장률(+0.1%)은 당초 시장의 예측치(+0.5%)를 크게 빛나갔다. 이에 따라 일부 국제기구 및 투자은행(IB) 등이 우리나라의 2024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제기된

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등 8개 IB의 한국 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지난 9월 말 기준 2.5%에서 10월 말 2.3%로 0.2%포인트(p) 내려왔다. 앞서 지난 6월 말 평균 예측치는 2.7%에 달한 바 있다.

이 같은 IB발 하향조정의 배경에는 3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성장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반영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분기 GDP가 직전분기와 비교해 0.2% 쪼그라들었다. 역성장했고 OECD 회원국 38곳 중 공동 31위에 이름을 올렸다. 3개국이 -0.2% 동물을 보이면서 한국 뒤는 불과 5개국밖에 없었다.

이제 4~6월 -0.2%, 7~9월 +0.1%라는 초라한 성적을 안고 4분기 연말 특

수에 기대를 걸어야 할 상황이 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4%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달 24일 ‘2024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설명회에서 “2분기 -0.2%에서 3분기 증가 전환했지만 0.1% 성장률은 양호한 수준이라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국장은 “산술적으로 4분기에 1.2% 정도 성장하면 연간 성장률 2.4%가 나온다. (그러나) 3분기 전망치에 비해 실적치가 낮게 나와 2.4%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대내외 불확실한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다음 달 전망 때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내수회복 지연 영향 소매판매 10분기째 ↓

통계청, 3분기 지역경제 동향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전국 소매 판매가 10개 분기 연속으로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의 경우, 15개 분기째 증가를 보였으나 증가 폭은 14개 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은 전국은 운수·창고, 금융·보험 등의 생산이 늘어 1년 전 같은 분기에 비해 1.0% 증가했다. 15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으나 상승폭은 2021년 1분기(0.7%) 이후 14개 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경남(-3.6%), 세종(-3.4%), 전북(-3.0%)은 부동산,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반면, 제주(9.0%), 인천(3.8%), 광주(1.1%)는 정보통신,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전문소매점, 슈퍼마켓·잡화점 등의 판매가 줄어 전년동분기 대비 1.9% 감소했다. 지난 분기(-2.9%) 대비 감소폭은 줄었으나 10개 분기 연속 줄어 들었다. 충남(3.9%), 충북(1.2%), 부산(0.9%)은 전문소매점,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가 늘어 증가했으나 인천(-4.4%), 강원(-4.1%), 서울(-4.0%)은 승용차·연료소매점,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등의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전국 광공업생산은 반도체·전자부품, 의약품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 대비 2.5% 증가했지만 2023년 3분기(-0.4%) 이후 4분기 만에 최저 수준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2분기 가계대출잔액 1892조 ‘역대최대’

>> 1면 '韓 경제의 뒷'서 계속

물가가 상승한 만큼 소득이 오르지 못하면서 가계가 저축을 줄였다는 분석이다.

이자비용이 늘어난 것도 저축여력을 끌어내렸다.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이자비용은 전년 대비 31.7% 급증했다. 코로나19기간 가계부채가 늘어난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계가 짊어진 빚의 규모

를 의미하는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1886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분기말 잔액은 1896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생계유지 위해..고금리 2금융권 대출 문제는 가계 순저축률 감소는 생계유지를 위해 또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은 1139조5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특히 은행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로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문턱도 높이고 있다. 기타대출 잔액은 238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10월 기타대출은 5조2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으로 대출받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8월 5000억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곤 모두 전월

대비 감소했지만 지난 10월 한달 새 2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자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 2금융권에 돈을 빌리는 수요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풍선효과로 더 늘어났다”며 “다만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너무 높이면 은행에서 대출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나 저소득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어 은행처럼 대출규제를 강화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물가 상승률 1%·경제활동참가율 65%... 나라살림 지켰다

기재부, 경제성과 점검 자료 발표
가계부채비율 하락세 유지 등 강조
글로벌 복합위기 충격 최소화 평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11일 윤석열 정부의 전 반부는 전 세계 복합위기 속에서 충격을 최소화한 데다,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대외 신인도 제고에 속도를 냈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 안정 및 건전재정, 고용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라고 자평했다.

윤 정부 임기가 2년6개월을 지나 후반부로 접어든 이날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성과 점검' 자료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현 경제팀이 ▲글로벌 복합위기 충격 최소화 ▲경제 펀더멘털 및 신인도 제고 ▲경제활력 및 지속가능성 증진 등 3개 부문을 중심으로 정책적 역량을 쏟았다고 했다. 또 이러한 정책 대응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경제성과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까지 내려온 점을 부각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 속에서 출범한 윤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물가부담 완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윤 정부가 출범한 첫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후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2%대로 떨어졌고, 최근 두 달간은 1%대의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비슷한 시기 미국 2.4%, 영국 2.6%, 유럽연합(EU) 2.1% 등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치인 4.4%를 크게 밑돌고 있다.

정부는 향후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으면 시 2% 이내 물가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동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 등을 추진했다고 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윤 정부 들어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15세 이상 고용률과 65%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성과로 내세웠다. 이

전 정부와 비교하면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3%포인트(p), 4%p 올랐다.

다만, 지표상으로 2021년 3월 이후 4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29세 이하 청년층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가 15만 명가량 줄어든 점도 향후 개선과제로 꼽힌다. 또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

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정부는 올해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쉬었음 청년인구는 전년대비 10만 명 안팎으로 늘어났다.

또 건설업과 도·소매업 부문의 고용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점도 임기 후반부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주요 성과에는 또 가계부채비율이 지난 2022년 감소세로 전환했고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출범 이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8년 86.8%, 2019년 89.6%, 2020년 97.1%, 2021년 98.7% 등 오름세를 나타낸 바 있다.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처음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줄이며 재정준칙을 지킨 것도 주요 성과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초를 고수하며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677조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채무는 올해 GDP 대비 47.4% 수준에서 내년에는 48.3%로 0.9%p 올라갔지만, 이전 정부에서 5~6%p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적은 규모라는 설명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尹 “후반기 정책, 소득·교육 등 양극화 문제 해소 집중”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

“세세하게 서민의 삶 챙기겠다는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하게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진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임기 절반을 마쳤다. 집권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의 ‘양극화 타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늘 국민 편에 있겠다고 말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는 수출, 투자, 고용 등 거시적으로 시장

경제의 체력, 기반을 마련한만큼, 후반기에는 미시적으로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지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라며 “양극화 해소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생 물가를 잡는 방법,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사안이 될 수 있다”며 “다음달 초 예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이벤트도 그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치를 새로 꾸리거나 재정 정책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며 구체화되면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고 했다.

다만 ‘전향적’이라는 표현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이 어느 수준으로 어떤 계층을 타깃으로 들어갈 지 등에서 구체적인 사안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향적’은 꼭 재정만 뜻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분을 타깃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체감할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미도 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양극화 타개’가 ‘4+1(교육·의료·연금·노동, 그리고 저출생 대책) 개혁’과 같은 선상으로 굵직한 국정 과제인지에 대한 질문에 “4+1 개혁안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지방 정주여건이나 교육, 의료개혁 이런 것들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곧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

공정위

“과징금 1조 이상 부과”

5800건 시장 반칙행위 적발·제재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2년 6개월간 총 5800건 이상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해 제재하고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 분야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년 반 동안 플랫폼·통신·사교육·의약품·게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와 반도체·건설 등 주력산업 분야 위주로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 155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성과가 국민과 기업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신속·효과적 대응’(공정거래법 개정),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의무부여,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대규모유통법 개정) 등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문화콘텐츠 등 우리 경제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신산업 분야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민생활 밀접 분야 부당 내부거래 등 법 위반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최상목 총리 “바위처럼 단단한 韓-美 경제협력 관계 유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적극 대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분야별로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

하고 트럼프 당선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 시장 등 우리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분야별 대응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외환 및 거시경제 측면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 성장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 등 정책 기조 변화를 점쳤다. 이와 관련해,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전략적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갈

이했다.

한편,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및 한국 국채의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국내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흔재한다고 진단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분야별 대외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한 비상설 회의체이다. 올해 4월 이후 총 6차례에 회의를 통해 중동사태 분석, 미국의 대 중국 관세 인상, 일본 신임내각과의 경제협력 방향 등이 논의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크리스마스 온다... 실적부진 백화점, 4분기 겨울특수 사활

고물가 여파 소비침체 장기화
늦더위에 아우터 판매도 부진

백화점 3사, 3분기 영업익 감소
크리스마스 테마로 집객 분주
동절기 패션 정기세일 행사도

“날씨 복병에 한숨만...”

고물가에 따른 소비침체가 장기화되자 그 여파가 고스란히 백화점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백화점 고마진 상품인 아우터 판매까지 부진했다.

백화점 업계는 반등의 기회를 잡기 위해 4분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올 겨울 역대급 한파가 예상된 가운데 크리스마스와 연말 특수까지 기대하고있다.

11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3사(롯데·신세계·현대)는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와 현대의 3분기 백화점 매출은 각각 7553억원과 5683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0.8%, 2.1% 감소했다. 신세계백화점만이 매출 619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역시 88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8%가 감소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9월 말까지 이어지며 간



롯데백화점이 지난 1일부터 서울 중구 소공동 본점 외벽에 '윈더폴 쇼타임'을 테마로 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절기 의류 판매 부진 여파가 고스란히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백화점에서 아웃도어(아웃도어, 스포츠, 여성·남성 패션, 아동, 골프 등을 아우르는 의류 매출 비중(연간 기준)은 40~50%로 꽤 높은 편이다. 하지만 9월 말까지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특수를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말 공개한 9월 유통업계 매출 분석에 따르면 백화점의 여성 정장(-9.0%), 여성 캐주얼

의류(-3.4%), 남성 의류(-8.2%), 아동·스포츠(-1.8%) 등 거의 모든 패션 상품군의 매출이 감소했다. 이 여파로 백화점 업계 전체 매출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20년 4분기(-6.0%) 이후 15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0.7% 역성장을 기록했다.

매출 부진은 영업이익 악화로 이어졌다. 3분기 각 영업이익을 보면 롯데가 707억원, 신세계가 883억원, 현대가 710억원으로 각각 8.0%, 5.0%, 11.0% 가량 감소했다. 고물가로 판매, 마케

팅,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이 늘어나면서 상황은 더욱 안 좋게 흘러갔다.

다만, 백화점 업계는 4분기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백화점 3사는 예년보다 일찌감치 크리스마스 장식대전을 선보이며 고객 확보에 속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4분기는 백화점의 연간 실적을 좌우하는 기간인 만큼 크리스마스 테마 공간 등을 활용해 오프라인 점포로 고객을 끌어들이며 매출을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보다 8일 앞

당겨 서울 명동 본점 외관에 초대형 디지털 사인지(공공장소나 상업공간에 설치되는 디스플레이)를 크리스마스 영상으로 선보였다.

롯데백화점 역시 지난해보다 이틀 빨리 서울 중구 소공동 본점과 잠실점 등 주요 점포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보이며 집객에 나서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에 이어 더현대서울에 크리스마스 테마 장식 '움직이는 대극장'을 공개했다.

또 동절기 패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정기세일을 시작한다. 롯데백화점은 180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패션 행사인 '더 그레이트 패션 페어'를 오는 17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행사는 참여 브랜드 수를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리고 기간도 2배 이상 연장했다. 현대백화점 역시 17일까지 '겨울 시즌 패션위크'를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은 겨울 정기세일, 유명브랜드 시즌오프, 아우터 페어, 구스 이블 특집전 등 연말 쇼핑 특수를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올해 3분기는 더위가 늦게까지 이어지면서 패션 부문의 매출이 특히 안 좋았다"면서 "올해 겨울은 한파가 예고된 만큼 마진율이 높은 패션 부문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연말 특수까지 긴 상황에 실적 반등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삼성 '신저가'... 반도체株 불확실성 고조

>> 1면 '美 증시 '트럼프 랠리'...'서 계속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대응' 좌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 방향성은 ▲무역

적자 축소 ▲미국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경쟁 우위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관세 등을 통상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기조에 영향을 받은 국내 증시 대표업종은 반도체를 필두로 한 수

출 관련주다. 대표적인 반도체주 이차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이날 52주 신저가(5만5500원)를 다시 썼다.

아울러 조 바이든 정부가 칩스법을 통해 약속한 각종 보조금도 축소·철회될 가능성이 생겨 반도체주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반도체 과학법(칩스법,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확장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수정 또는 폐기를 주장해 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국내외 증시의 상반된 분위기를 감지한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 시장보다 우상향 가능성이 높은 미국 증시로 빠르게 투자처를 옮기는 추세다.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 7일(결제일 기준) 1013억 6571만달러를

기록하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1월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주 한국 증시는 금융시장 전반의 움직임과 각국 경제 흐름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박스권에 머무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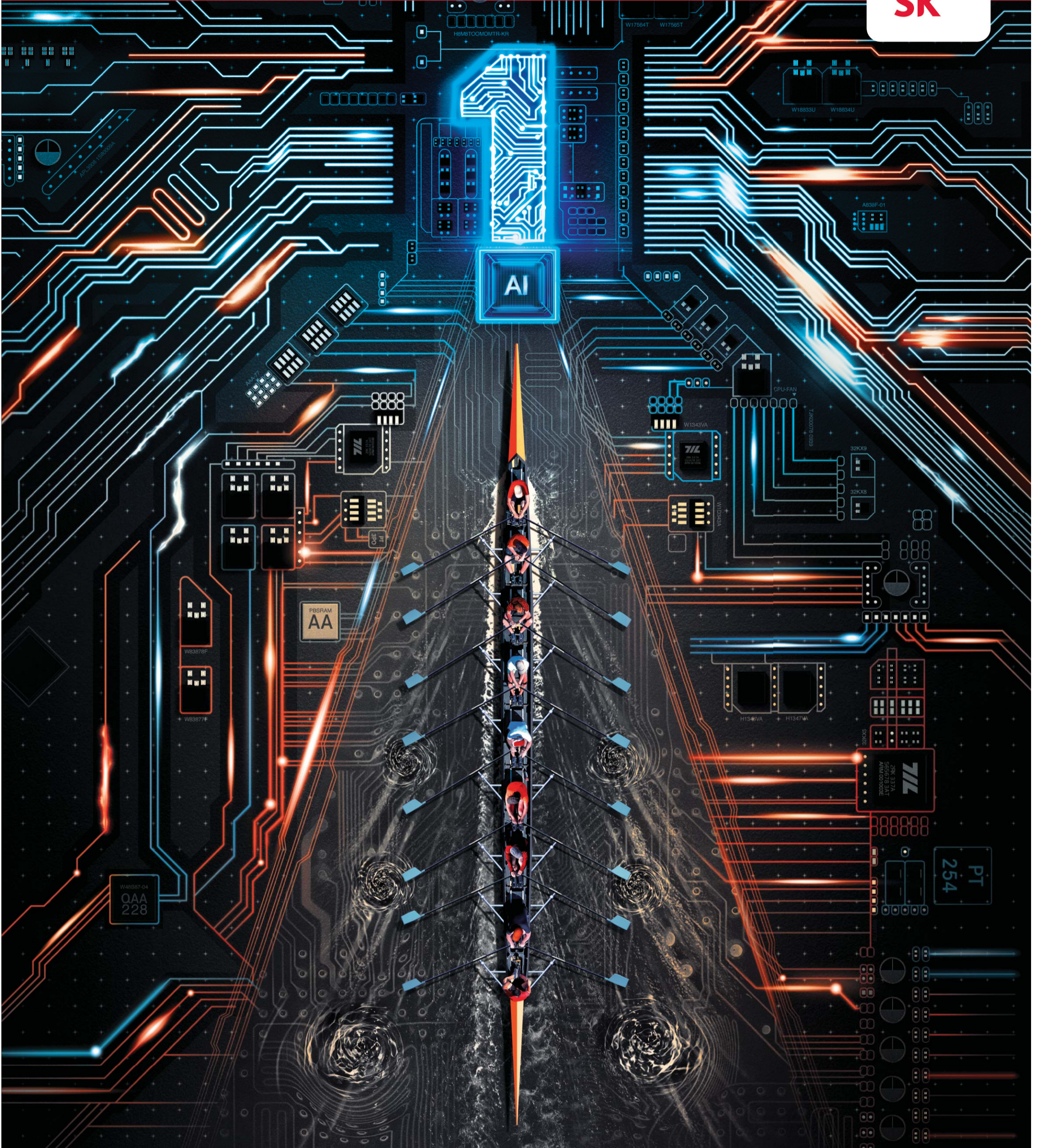
/허정윤기자 zelkova@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LIVE

수출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외 수입자 신용조사부터 수출 관련 자금조달, 수출보험 가입, 수출대금 회수까지
K-SURE가 수출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원팀으로 AI시대를 여는 FIRST MOVER

‘여·야·의·정 협의체’ 첫발

“내달 말까지 결과 도출할 것”... 민주당·전공의 단체는 불참

한동훈 “민주당 참여 언제든 환영”
매주 일요일 전체회의 열어 논의
대한전공의협 “당사자 없이 대화
의대모집 정치 등 입장부터 밝혀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등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에 참여 없이 첫발을 뗀 가운데,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매주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3선의 이만희·김성원 의원,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한국외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이사장, 양은해 KAMC 정책연구위원장이 함께했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동훈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협의

체의 목표는 국민의 건강이고 방법은 소통과 대화”라며 “다만, 아직 협의체에 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협의체는 민주당이 제일 먼저 말을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여기 있는 모두가 민주당의 참여를 언제든 환영한다”고 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전공의 사적으로 인한 수련병원의 진료 공백으로 환자 여러분이 겪으신 불안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또한 중요한 시기에 교육과 수련 현장을 떠난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이 상황이 해결돼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절박함 역시 협의체 참여의 절박한 이유”라며 “우리는 협의체 참여에 원칙으로 제시한 여러 현안들이 진솔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료 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 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드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라며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 재정 10조원을 투자하는 등 총 30조원을 투자

할 계획이다. 의료계의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의료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필수 의료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것에 의미를 두고 정부, 의료계, 당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라며 “첫 회의이니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어떻게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협의체는 매주 일요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주중에 소위원회를 열어 의정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의

요청 사항에 대해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 입대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협의체가 12월말까지 기한을 두고 있지만 가능한 12월 22~23일 전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체 출범 소식에 자신의 사물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 대표는 전공의와의 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모집 정치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여야의 정이 여러 논의를 하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난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출범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지지율 ‘최저’, 부정평가는 ‘최고치’ 경신

긍정평가 22.3%, 부정 75.1%
취임 이후 지지율 최저치 기록
담화·기자회견, 기대치 하회



최고점(74.2%)을 제치며 최저점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작심하고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기대한 것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지율 자체는 회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간 지지율은 5일 21.0%, 6일 21.4%였고, 7일에는 23.0%, 8일 23.2%를 기록했다. 지난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주 후반 소폭 오른 것이다. 그러나 지지율이 소폭으로 움직인 것을 보면, 기자회견이 여야 안팎의 쇠신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권역별 지지율은 수도권에서 내리고 대구·경북(TK)에서 올랐다. 서울 지지율은 전주 대비 2.7%포인트 내린

22.2%, 인천·경기는 1.5%포인트 내린 20%, 대전·세종·충청 지지율은 2.9%포인트 내린 18.4%로 나타났다. 반면 TK 지지율은 전주(30.2%) 대비 7.0%포인트 상승한 37.2%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TK 지지율 상승에 대해 “민심에 귀 기울이며 속도감있게 쇠신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짧은 입장만 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 등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총 통화 시도 7만6262명 중 2516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syj@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14일 ‘김건희 특검’ 수정안 제출

주가조작, 공천·선거개입 의혹 국한 제3차 추천방식 포함... 이 탈 유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 축소 및 제3차 추천권한을 담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수정안은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수사 대상은 13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된다.

이어 “제3차 추천(요구)을 수용해 제3차 추천방식을 포함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제출하며 수사 대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비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등 총 13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제출한 바 있다.

그간 민주당은 개별 특검법과 상설 특검까지 추진하며 김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여당에서 의미있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자 수사 대상을 좁히고 제3차 추천방식을 포함해 여권의 이탈을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특검 수사 범위를 좁힌 이유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국정농단, 선거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밝히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국민통합위, 경력단절 등 여성 사회문제 논의

오는 15일 ‘국민통합 컨퍼런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가 오는 15일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11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로얄파크 컨벤션파크홀에서 개최된다. 우리 사회의

여성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는 것이 국민통합위의 설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월 국민통합위 3기 출범식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딥페이크 범죄 등 여성 안전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치학자 김지윤 박사가 ‘공감·상생·연대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

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뒤, 1세션 ‘여성의 경력단절과 가족돌봄’, 2세션 ‘AI(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사회안전’ 발제 및 토론이 이어진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여성이 돌봄의 부담과 경력 단절의 불안에서 벗어나 개인적 성취와 가정의 행복을 동시에 누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양성평등 실현의 지름길일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만큼 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GREEN *Sweet* WINTER

강원 다래의 상큼 달콤함을 담은 겨울의 한 잔



다래 레드 스위트
5.9



다래 그린 스노우
ICE ONLY 6.9



강원특별자치도

우리나라 토종 과수 다래 농가와 함께합니다.

“나이롱환자 만드는 경상환자 보상, 치료 중심으로 바꿔야”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 비중 85% 치료비 우선보상으로 합의 유도 합의 기간 짧지만 외래진료 길어 보편·타당 치료중심으로 합의를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의 적절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보편타당한 치료 및 보상기준이 부재해 ‘나이롱환자(가짜환자)’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해급수 12~14급인 경상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비중은 지난 2019년 기준 85%로 집계됐다.

다만 자동차보험제도의 대부분은 중상해환자를 기준으로 마련돼 경상환자에겐 적절하지 못하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원화와 입원료 체감률 미적용 등은 골절 절단 등 중상해환자의 치료에는 적절하나 편타성 상해



햇 지피티가 생성한 경상환자 증가 이미지.

등이 대부분인 경상환자에게는 적절하지 않다.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기준이 정립되지 않으면서 일본의 자동차보험제도에 따라 보편타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기준이나 보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나이롱환자 문제

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일본의 자동차보험제도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보상 및 치료기준 마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제도의 차이는 한방진료와 합의 시점이다. 일본은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치료가 시작된 후 사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해 치료를 종

료하고 합의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피해자와 합의금으로 합의한다. 합의금은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의 합계에 과실비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가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피해자가 합의하면 사고책임이 종료된다.

문제는 경상환자가 치료보다는 ‘합의금’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상환자의 보험금 대비 위자료와 휴업손해 비중보다 더 높았고 경상환자 치료비 변동성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합의일수는 일본에 비해 짧지만 외래진료일수는 더 길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향후치료비를 보상하면서 합의를 유도하고 일본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 사고 조사가 이뤄져 합의일수는 더 길어져서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중심 관행이 보편타당한 ‘치료’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치료기준의 부재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 보험계약자들은 일본 계약자에 비해 2.5배 높은 대인배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일본의 위자료와 휴업손해 금액은 우리나라 합의금의 31%에 불과하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경상환자 치료비 변동성이 더 크고 보험금 대비 합의금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들이 ‘치료’보다는 ‘합의금’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편적이고 타당한 치료기준 부재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중심 관행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편·타당한 치료 중심으로 합의 관행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트럼프 효과’에 날개 단 가상자산… 韓, 정책 변화 시동

가상자산위, 법인계좌 허용 검토 현물ETF 거래 논의도 속도낼 듯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면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나아가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허용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에 가상자산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지난 6일 출범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위원은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 대학교수,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15인으로 이뤄졌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개최 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앞줄 가운데)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자문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출범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최했고,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에 대한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은행에 연결된 실명 계

좌가 있어야 하는데 법인에는 계좌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실명 인증을 마친 개인 계좌만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하고 법인 계정을 실명 인증 계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이미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면서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인 계좌 발급 허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논의의 내용을 토대로 12월 중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대하는 기초가 바뀔 것을 두고 트럼프 후보의 재선 성공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

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 친(親)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 바이든 정부와 다른 길을 걷겠다고 공언하면서 금융 규제완화,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 개선, 미 국제 발행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로 유동성 증가 등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친(親)가상자산시장 정책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인계좌와 더불어 가상자산 현물(ETF)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내 가상자산 정책은 글로벌 국가들의 비해 매년 후발주자로 시작했을 뿐더러 미국 정책에 발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2기가 본격 시작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에서는 알트코인 현물 ETF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현물 ETF 거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안양도 국평 15억 시대… ‘아크로 베스티뉴’ 공급

18일 특별공급, 19일 1순위 청약 전용 84㎡ 최고가 15억7440만원

경기도 안양에서 ‘국민평형’인 전용 면적 84㎡의 분양가가 15억원을 넘어 서면서 청약 흥행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후분양에 역세권,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됐지만 안양에서는 역대 최고 분양가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 들어서는 ‘아크로 베스티뉴’는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아크로 베스티뉴는 안양 호계동천 재개발사업이다. 지상 37층, 10개 동으

로 총 1011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391가구다. 면적별로는 ▲39㎡ 10가구 ▲59㎡A 286가구 ▲59㎡ B 33가구 ▲74㎡B 21가구 ▲84㎡ 41가구다.

단지는 롯데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을 지하로 연결한 범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다. 평촌학원가를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이와 함께 DL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아크로’가 경기권 최초로 적용됐다.

분양가는 예상보다 높다는 분위기가 있다. 전용 84㎡가 최고가 기준 15억7440만원이다. 59㎡도 10억8950만원으로 10억원을 넘어섰고, 74㎡는 14억290만원이다.

아크로 베스티뉴가 들어서는 호계동에서는 신축도 84㎡가 최고 11억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올해 입주한 ‘평촌트리비아’가 올해 8월 11억5000만원에 거래됐고, 2023년 입주한 ‘평촌센텀퍼스트’가 11억3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2021년 입주한 ‘평촌아반피스트’는 최고가가 10억5000만원이었다.

분양 관계자는 “‘프레스티어자이’의 경우 분양가가 3.3㎡당 6275만원으로 과천 역대 최고가였지만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며 “아크로 베스티뉴는 빠른 입주도 가능해 상급지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얼죽신’ 열풍에 신축 매매가 격차 심화

5년 이내 vs 5년 초과 매매가 1.31배 성동구 3.19배, 용산구 1.83배 차이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선호)’이란 신조어와 함께 5년 이내와 5년 초과 아파트값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1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 결과 이달 전국 5년내 아파트의 3.3㎡(평)당 매매가격은 2145만원 수준으로 5년 초과 아파트값(1635만원)과 비교해 1.31배를 나타냈다.

이는 집값 고점기로 꼽히는 2021년 1.27배와 비교해 가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서울은 5년내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이 5559만원 수준으로 5년 초과 아파트(3960만원)와 비교해 1.40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은 강남권의 재건축 추진 단지 영향으로 입주연한이 오래된 아파트값이 높은 편이었다. 도심 재건축완료로 대단지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최근에는 새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개별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3.19배의 차이를 보였다. 성수동 내 아크로서울포레스트(2020년 11월 입주)가 숲세권과 한강뷰로 고가를 형성하며 5년 초과 아파트와 가격차가 컸다.

다음은 용산구로 1.83배 차이다. 한남동의 고가주택으로 꼽히는 나인원한남(2019년 11월 입주), 용산센텀파크(2020년 8월 입주) 등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가격을 끌어올린 영향이다.

/전지원 기자 jiw13@

6만여종 부품 차곡차곡... “수입차 1위 품질·서비스 이어갈 것”

르포

BMW 안성 부품물류센터

축구장 8개 규모... 150여명 근무
전기차 배터리 전용창고 구축 전망
“2027년까지 3만㎡ 추가 확장”

서울에서 차로 한 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BMW그룹코리아 안성 부품물류센터. 외곽으로 들어서자 커다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축구장 8개에 맞먹는 21만 1500㎡(약 7만평) 규모의 부지가운데 위치한 BMW 부품물류센터는 마치 도시 외곽의 작은 공업단지 같은 느낌을 주었다.

“지난 2017년에 오픈했을 때 투자 규모는 1300억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650억원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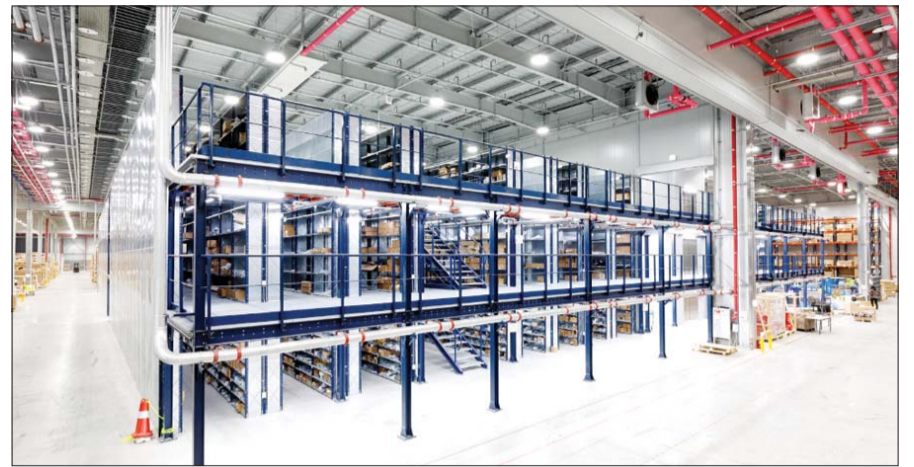
BMW그룹코리아 정산청 애프터세일즈 총괄 본부장은 11일 BMW 부품물류센터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027년까지 3만 1000㎡ 면적 추가 확장을 통해 한국 고객이 부품을 필요로 할 때 즉각 제공하는 최전선이 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

중축 이후 BMW 부품물류센터의 전체 보관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5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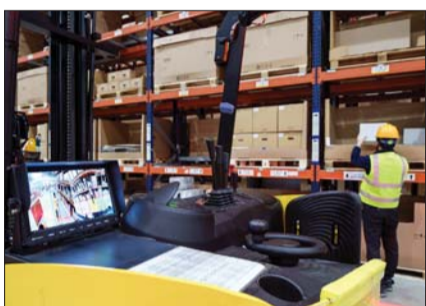
향후 부품물류센터 안에는 별도의 전기차 배터리 전용 창고도 구축될 전망이다. 전동화 시대에 대한 준비성이 돋



BMW 그룹 코리아 안성 부품물류센터 (좌)외관 (우)내부



/BMW그룹코리아



시설 내 곳곳에 설치된 모션센서를 통해 지게차와 작업자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인식한다.

보이는 BMW 부품물류센터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

◆첨단기술 기반 안전대책 확립

BMW 부품물류센터에 발을 들이자마자 웅장한 규모와 근로자들의 바쁜 에너지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BMW 부품물류센터는 메인창고, 위험물 창고(2개동), 팔레트 보관소, 웰컴 하우스, 경비동 등 총 6개 건물로 구성되

어 있다. 현재 150여명의 운영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면적 확장 이후 100여명이 더 근무할 예정이다.

작업자들은 각자의 일에 몰두하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지게차를 몰고 있는 작업자 역시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지나가는 사람들을 빠르게 파악하는 모습이였다.

주변의 근로자들도 시설 내 곳곳에 설치된 모션센서를 통해 지게차와 작업자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현장이 한층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특히 공장 곳곳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소방 시설과 안전 장치들이 눈에 띄었다. 화재를 비롯한 여러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꼼꼼히 마련된 예방책 덕에 안전을 최우선임을 알 수 있었다.

창고동에는 온도에 민감한 조기자동형 습식 스프링클러 헤드 1만 3000개가 설치돼 세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천장뿐 아니라 부품을 보관하는 특정구역 보관대에도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돼 화재 초기 대응 및 진압을 가능케 한다.

◆효율적인 부품 공급 시스템

BMW 부품물류센터는 약 6만여종에 달하는 부품을 보유하고 있다. 부품 가용성도 BMW그룹이 제시하는 글로벌 기준을 상회하는 95%에 달해 부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하며 적시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도 직간접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양한 보유 부품의 종류와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비롯해 긴급 배송이나 당일 배송 서비스와 같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 각 딜러사까

지의 리드타임을 최소화한다. 딜러사는 부품을 더욱 빠르게 수급 가능해 수리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

아울러 BMW 부품물류센터는 인공지능 부품 공급 시스템인 SRD(Supply & Replenishment for Dealership) 프로그램의 빅데이터 및 수요예측 알고리즘을 활용해 전국 BMW 그룹 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의 부품 수요량을 계절별, 시기별로 분석해 부품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다.

BMW그룹코리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 고객을 위해 최고 품질의 차량을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최상의 서비스 품질 제공과 고객 만족을 위해 한국 시장에서 지속적인 투자로 국내 수입자동차 1위다운 리더십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전자, ‘디지털 콕핏 감마’ 공개... 운전자 상태 자동인식

졸음 감지시 가까운 카페 검색
“차별화된 운전자 경험 제시”

LG전자가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한데 모아 운전자 편의를 한층 진화시킨다. 운전자 상태를 자동 인식해 졸음이 감지되면 가까운 카페를 검색하는 것은 물론 비용은 지문인식으로 간편하게 결제한다. 또 급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경우에는 음성인식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LG전자는 11일 미래 모빌리티 신규 콕핏(첨단 기술이 집약된 운전자 공간) 콘셉트인 ‘디지털 콕핏 감마(Digital Cockpit gamma)’를 공개했다.



LG전자 11일 ‘디지털 콕핏 감마(Digital Cockpit gamma)’를 공개했다. (왼쪽부터) ▲비전 디스플레이 ▲커넥티비티&콘텐츠 ▲인텔리전트 HMI(Human Machine Interface) 모듈로 구성된 디지털 콕핏 감마. /LG전자

디지털 콕핏 감마는 ▲투명 올레드 계기판(클러스터) ‘비전 디스플레이’ ▲고객이 차량과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인텔리전

트 HMI(Human Machine Interface)’ ▲5G(5세대) 통신을 활용해 차별화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는 ‘커넥티비티&콘텐츠’ 등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모듈형으로 구성했다.

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차별화된 운전자 경험을 제시하는 LG전자만의 미래 전장 기술력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 VS사업본부는 지난해 해부터 공식 홈페이지의 ‘모빌리티 랩 워크스 시리즈(Mobility Labworks Series)’를 통해 전장 솔루션 콘셉트를 꾸준히 공개하고 있다. 이는 완성차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LG전자가 모빌리티 기술의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시하고 혁신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현대트랜시스 비상경영 성명서 발표

현대트랜시스가 노조의 과업 종료와 함께 회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현대트랜시스는 11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비상경영체제 성명서’를 내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원의 급여 20% 반납을 포함하는 비상경영체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동 현대트랜시스 사장은 성명서에서 “저를 포함한 경영진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임원 연봉의 20%를 자진 반납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비상경영체제 전환과 위기극복 의지를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모비스, 경량 고분자 복합소재 서스펜션 선보

모듈신기술 성과공유회

새시, 콕핏 등 신기술 22개 공개

현대모비스가 자동차부품 통합 설계 경쟁력을 집약한 모듈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를 대거 공개했다.

자동차 모듈은 기능별로 수십에서 수백개의 부품을 통합한 중대형 부품을 의미한다. 현대모비스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특화된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모듈을 경량화하거나 부피를 줄이고,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감성기술 도입을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콕핏모듈은 탑승객의 감정에 따라 실내 조명을 바꿔주고, 터치만으로 수납 공간인 클로브박스를 자동으로 열 수 있다.

확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경기도 의왕연구소

에서 ‘모듈신기술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하고 있는 새시와 콕핏(운전석), 프론트엔드 모듈 등 자동차 3대 모듈의 연구개발 성과를 고객사와 협력사에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선보인 신기술 22개 중에서는 새시모듈을 구성하는 서스펜션에 경량 고분자 복합소재를 적용한 제품이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금속소재의 코일스프링 대신 신소재로 판(版)형상의 스프링을 개발해 서스펜션에 적용, 새시모듈 중량을 줄이고 좌우로 쏠리는 힘을 견

디는 횡강성과 승차감을 높였다.

설계 효율화로 차량 하부 배터리 장착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주행거리를 향상하는 전기차 특화 새시모듈, 자율주행 확대에 따라 운전석 조작용 일체를 의미하는 콕핏모듈에 조명 조정 등 각종 편의장치를 적용한 모듈도 공개했다.

현대모비스 모듈연구실장 박종성 상무는 “고객사의 다양한 수요가 예상되는 목적기반 모빌리티(PBV), 전기차용 모듈과 함께 자율주행과 연동한 요소기술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에너지솔루션

‘스페이스X’ 배터리 공급

LG에너지솔루션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 우주선에 전력공급용 배터리를 공급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스페이스X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이스X는 현재 새로운 우주왕복선 등을 개발 중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사인 스페이스X의 요구에 맞게 배터리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스페이스X의 사업 확대에 따라 배터리 공급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차현정 기자

“네이버, 매년 연매출 25% R&D 투자… AI 생태계 이끌 것”

통합 콘퍼런스 ‘단 24’

사용자·창작자 위한 AI 도구 넘어
SME·브랜드사 위한 라인업 갖춰

내년 상반기에 ‘네이버 배송’ 도입
주문 후 1시간 내외 배송 신설키로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공개하고 향후 서비스와 결합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6년간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ESG 활동에도 나선다.

네이버는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팀네이버 통합 콘퍼런스 ‘단(DAN) 24’를 열고 연매출 4분의1을 인공지능(AI)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하이퍼클로바X 등 네이버 AI 원천기술을 각종 서비스에 밀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온 서비스(On-Service) AI’ 전략을 적극 펼친다는 것.

네이버는 또 내년 상반기에 주문 한 시간 뒤 배송해주는 ‘지금배송’ 서비스를 선보인다. 쿠팡의 경쟁력인 ‘새벽배송’에 맞설 새로운 무기다.

최수연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매년 매출 20~25% 규모의 연구개발(R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팀네이버 통합 콘퍼런스 ‘단 24’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네이버

&D) 투자를 통해 네이버가 국내 AI 생태계를 이끌겠다”며 “네이버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개발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 업그레이드 버전인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했다. 이후 1년간 사용자, 판매자, 비즈니스 파트너 등을 위한 수십 건의 생성형AI 프로젝트(제품)들을 테스트한 결과 상용화 단계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네이버는 사용자와 창작자를 위한 AI 도구는 물론 SME(소상공인)와 브랜드사를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 보안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B2B

사업 영역까지 매우 폭넓은 생성형 AI 기술 라인업을 갖췄다”며 “이러한 네이버의 기술을 실서비스에 밀착시킬 시기”라고 전했다.

최 대표는 “네이버는 원천 기술인 검색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국내 시장을 지켜왔듯이 국내 AI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매출의 20~25%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기술 개발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며 AI 투자 의지도 밝혔다.

네이버의 생성형AI 검색도 소개했다. 네이버의 생성형AI 검색은 현재의 통합검색 기술에 AI와 개인화 추천 기술이 결합된 형태다.

네이버 통합검색에서 제공될 ‘AI 브리핑’도 공개됐다. 네이버는 양질의 문서가 부족한 통태일 키워드나 외국어 키워드들에 대해 우선 적으로 적용해 나가며 정답을 찾는 니즈부터 관심사 탐색을 위한 니즈까지, 네이버 검색결과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사용자 검색 만족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쇼핑 검색, AI, 개인화 추천 기술을 결합한 AI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 주문 이후 1시간 내외 배송이 가능한 ‘지금배송’, 다음 날 아침 도착하는 ‘새벽배송’ 등 다양한 시간 단위 배송이 가능한 서비스도 선보인다.

이윤숙 네이버 쇼핑 사업 부문장은 “500만 국민이 모두 다른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초개인화된 AI 쇼핑 앱을 선보이겠다”며 “새로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순차 도입되는 AI 쇼핑 추천 기능은 사용자의 숨은 탐색 의도와 맥락, 쇼핑 이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상품 정보가 입력

되지 않더라도 원하는 상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에 다양한 시간 단위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배송’을 도입한다”며 “오늘배송, 내일배송 외에도 주문 후 1시간 내외 배송이 가능한 ‘지금배송’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대표는 네이버의 ESG 경영 활동에 관한 계획도 밝혔다. 최 대표는 “수천만 사용자와 수백만 SME, 창작자, 광고주의와 상생은 플랫폼업의 본질이자 경쟁력”이라며 지난 8년간 SME와 창작자를 위해 힘써왔던 ‘프로젝트 꽃’의 성공경험을 AI 생태계로 확대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프로젝트 꽃’을 확대한 네이버의 ‘임팩트 프로젝트’는 누구나 AI를 비롯한 네이버의 다양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테크 임팩트, 고유한 아이디어와 상품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사업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비즈니스 임팩트,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건강한 커뮤니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커뮤니티 임팩트 부문으로 확대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혼다, 디자인·연비 갖춘 ‘디오 125’ 출격

이지홍 대표 “저속에서 안정적 토크
발 거치대 편안, 출발·정지 부담 줄여”

유로5+ 환경규제 충족 124cc 스쿠터
맷·필 그레이 두가지 색상, 269만원

혼다코리아가 여반 스포티 커뮤터 ‘디오 125’를 11일 국내 공식 출시했다.

혼다코리아는 이날 경기도 분당시에 위치한 카페 더 고에서 ‘디오 125’ 출시 행사를 열었다. 혼다코리아는 디오 125 출시로 연 3만 대 규모의 국내 소형 스쿠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이사는 “직접 시승한 결과 스쿠터 특성상 저속에서 느껴지는 토크가 인상적이었다”며 “편안한 위치에 발 거치대가 마련돼 출발과 정지 상태에서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디오 125는 유로5+(EURO5+) 환경규제를 충족하면서 도심과 어울리는 스포티한 디자인을 채용한 124cc 공랭식 단기통스쿠터다. 우수한 동력 성능은 물론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용했으며 200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면에는 날렵한 디자인의 LED 헤드라이트와 포지션 램프를 채용해 시인성을 높이고, 후면부는 스포티한 테일라이트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주유구를 시트 뒤편에 별도로 적용해 주유를 위해 시트 커버를 여닫을 필요가 없다. 일반 스쿠터는 보통 시트 안쪽에 주유구를 위치해 주유시 시트 커버를 열어야 하는 불편이 있다.

2025년형 디오 125는 124cc 공랭식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이사가 11일 경기도 분당시 카페 더 고에서 진행된 ‘디오 125’ 출시 행사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혼다 디오 125의 주유구 모습. /양성운 기자

단기통 eSP(Honda Enhanced Smart Power) 엔진이 탑재돼 최고출력 8.3마력, 최대토크 1.1kg·m의 성능을 발휘하며, 연비는 49.5km/l 다. 혼다 eSP 기술은 효율적인 연소와 엔진 마찰 최소화 화로 에너지 출력을 최적화해 조용하고 부드러운 엔진 스타트를 지원하는 스마트 전원 기술이다.

디오 125는 일상적인 커뮤터는 물론 비즈니스 영역까지 라이더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첨

단 장비를 탑재했다. 프론트에는 12인치 휠에 텔레스코픽 서스펜션을 장착해 깔끔하고 세련되면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제공하고 리어엔 10인치 휠에 3단계 조절식 서스펜션을 채용했다. 전후륜 연동 브레이크 시스템 CBS도 갖췄다.

이 외에도 혼다 스마트 키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 키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시동을 켤 수 있다. 간단한 버튼 조작을 통해 차 위치 알림 기능과 차량의 충격 및 위치 변경을 감지해 알람이 울리는 도난 방지 경보 등 각종 안전편의품목으로 실용성을 높였다. 수납 공간은 18L다.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는 “새롭게 출시된 디오 125는 안전성, 스포티한 디자인, 우수한 성능과 경제성까지 모두 갖춘 모델”이라며 “일상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고객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오 125 가격은 269만원 (VAT 포함)이며, 컬러는 맷 그레이, 필 그레이 2가지로 판매된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오션, 7135억 LNG 운반선 2척 수주

올해 총 39척… 국내 최대 수주고

한화오션이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2척을 추가 수주하며 올해 국내 조선소 중 가장 많은 수주고를 올렸다.

한화오션은 LNG 운반선 2척을 7135억원에 수주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선주사는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사로, 해당 선박은 경남 거제시업장에서 건조해 2027년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17만 4000㎥급 대형 LNG 운반선으로 한화오션의 천연가스 추진 엔진(ME-GI)과 완전 재액화시스템(FRS)이 탑재돼 기존 LNG 운반선 대비 연료 효율은 높고 오염물질 배출량은 낮출 수 있다.

이와 함께 한화오션의 스마트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인 공기순환시스템(ALS), 축발전기모터시스템(SGM) 등 친환경 기술도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약에는 2척의 옵션 계약도 포함돼 향후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올해 현재까지 39척, 78억 7000만 달러(약 11조 원) 상당의 수주고를 올렸다.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 35억 2000만 달러의 두 배를 넘겼다. 선종별로는 LNG 운반선 및 LNG 저장·재기화설비(FSRU) 19척, 초대형원유운반선 7척, 컨테이너선 6척, 암모니아 운반선 3척, 해양 1기, 특수선 3척 등이다.

안젤리쿠시스 그룹은 한화오션에 1994년 첫 발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23척을 발주한 한화오션의 최대 고객이다. 금액으로는 약 150억 달러로 20조원이 넘는다. /양성운 기자

LG유플러스, 차세대 6G주파수 특성 연구

LG전자·KAIST 6G연구센터 합동

LG유플러스가 6G 기술개발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

LG유플러스는 LG전자, KAIST 6G연구센터와 함께 차세대 6G 통신 후보 주파수 대역에서 전파의 투과 및 반사 특성을 측정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6G 통신망의 개발 준비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대표적인 6G 후보 주파수 대역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뒀다. 6G연구센터는 LG전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6세대(6G) 이동통신 연구개발(R&D)을 위해 설립한 연구소다.

이동통신에 필수적인 주파수는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사용을 위해 표준화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전파회의(WRC-23)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4.4~4.8기가헤르츠(㎐), 7.125~8.4㎐, 14.8~15.35㎐ 주파수 대역이 6G 후보 주파수로 채택됐다. 또한 2030년 이후의 추가 주파수 할당을 고려하면서 140~160㎐ 대역 범위를 포함한 100㎐ 이상의 광대역 후보 대상 주파수가 지명됐다.

LG유플러스와 LG전자, KAIST 6G 연구센터는 이들 후보 대역 중 7~15㎐(Upper-mid)와 140~160㎐(Sub-THz) 대역을 선정해 실험을 진행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美 주식 열풍’ 계속된다… 증권사, 4분기 실적도 ‘好好’

5대 증권사 3분기 당기순이익
1조2267억… 지난해비 68% ↑

해외주식 수수료 급증 영향
‘美 우선주의’ 정책에 상승세 지속

대형 증권사들이 국내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주식 거래대금 증가에 힘입어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 차기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인해 미 증시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증권사들의 4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 실적을 발표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등 5대 증권사의 3분기 당기순이익 합산액은 지난해에 비해 69% 증가한 1조2267억원에 달했다.

올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미국 우선주의’ 이미지.

(PF) 및 해외투자자산 총당금 적립액이 줄어든 데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으로 증권사들의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실적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올 3분기

국내 주식시장 일 평균 거래대금은 1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 감소했다.

하지만 미국 주식 열풍으로 인한 해외 거래대금 증가로 해외주식 수수료가 급증, 국내 증시의 부진을 상쇄하면서

5대 증권사들이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다. 올 3분기 해외주식 일 평균 거래대금은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0% 가까이 증가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도 지난 7일 기준 1013억6570만여달러(약 141조7295억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 시장 점유율이 높은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었다. 키움증권은 3분기 해외주식 수수료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약 80% 증가한 52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이 각각 약 79%, 148% 증가했으며,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각각 77%, 5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민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이동 현상은 202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핵심 테마 중심의

증시 상승추세로 인해 올들어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18년 4%에 불과했던 외화증권 수수료 비중이 최근 25%까지 상승해 증권사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쏠림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4분기에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 증가로 인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로 미국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국내 증시는 항상 박스권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가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미국 증시전망은 사상 최고치 아니면 약간 조정 정도로 가고 있어 해외 주식 수요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상장사, 횡령 등 자금 부정 통제 공시해야”

금감원, 공시 세부작성 지침 마련
2026년부터 전체 상장사로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 운영 기대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충실하고 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회사·대형 비상장회사는 내년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추가 기재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첨

부되는 서류로,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주주와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때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 ▲자산 1000억원 이하 상장 금융사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 금융사 등에 해당 공시가 의무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6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예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외감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공시는 금융위원회가 2022년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 일 부로, 회사가 자금 부정 통제를 적극적

으로 공시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과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상세 기준을 홈페이지에 제공했다. 또 작성 사례와 FAQ를 마련해 실무자의 작성 편의를 돕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함에 따라 경영진과 통제·점검수행자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이들의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이날 사전 예고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소식에 주가 급락

호재·악재성 정보 시간차 공시

이수페타시스가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지난 8일 장마감후 공시한 회사측의 2차전지 소재기업 인수계획 등 중요 의사결정이 ‘선별적 공시’ 의혹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11일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는 개장초 18%까지 하락했다가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인 끝에 전 거래일 대비 22.68% 하락한 2만4550원에 장을 마쳤다. 이같은 급락세는 대규모 증자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8일 5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이 중 2998억원을 2차전지 탄소나노튜브 소재 제조업체 제이오의 경영권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양승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수페타시스의 주주는 인공지능(AI) 기반 MLB 기

관(고다중인쇄회로기판)의 고성장을 공유하기 위한 투자자이지 이차전지 투자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수페타시스의 ‘올빼미 공시’ 논란이 투자자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8일 오후 4시 55분, 대구시와의 투자협약 체결 소식을 공시하고, 곧이어 제이오가 최대주주 강득주 대표이사 지분(575만주)을 이수페타시스에 양도하는 공시를 냈다.

이를 호재성 정보로 인식한 투자자들이 시간의 단일이 거래로 이수페타시스 주식을 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시간의 단일이 거래가 마감된 직후 이수페타시스는 5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 악재성 내용을 공시했다. 이수페타시스는 이날 오전 9시에 유상증자와 시설 투자안건을 이사회에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차로 나눠서 공시한 것이다. /원관희 기자

한투증권, 국내외 투자기회 발굴 지원

‘KIS글로벌투자자 콘퍼런스’

한국투자증권이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KIS 글로벌투자자 콘퍼런스 2024(KIS Global Investors Conference)’를 개최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투자기회 발굴 및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하는 콘퍼런스이다.

김성한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개막 연설에서 “한국투자증권은 고객들과 더불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기 위해 플랫폼 파워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참석하신 모든 기업과 투자자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투증권은 지난 2008년부터 홍콩, 싱가포르, 뉴욕, 런던 등 전세계 금융도시에서 연 1회 개최해 오다, 지난해부터

는 국내에서도 추가로 개최하며 기업과 투자자 참여를 크게 확대했다.

이번에는 국내외 73개 기업과 글로벌 기관투자자 28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자동차 등 각 산업을 대표하는 회사들이 참여해 기업설명회를 열었다. 해외에서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대만의 팹리스 반도체 회사 에이데이타(Adata) 등이 참석해 투자자들의 시선을 모았다. 컨퍼런스 현장에서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스킨십 강화를 위한 약 380건의 기업 미팅이 열렸다.

11일에는 미국의 소형모터원전 기업 오클로의 제이콥 드위트 대표가 혁신에너지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고, 미즈호증권의 스티븐 리치우도 수석 이코노미스트, 블룸버그의 마사히로 와카스기 반도체 애널리스트, 스티펄파이낸셜의



김성한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KIS Global Investors Conference 2024’에서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토마스 캐럴 투자전략 애널리스트도 연사로 나서 분야별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이어서 AI 반도체와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한 세션도 진행됐다. 12일에는 워싱턴 리서치그룹의 크리스토퍼 루거 이사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적 변화와 산업별 영향에 관해 강연한다. /허정윤 기자

KB자산운용, TDF 수탁고 1.5兆 돌파

(타깃데이트펀드)

시장 점유율, 작년 말비 0.8%p 늘어

KB자산운용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시리즈 수탁고가 1조 5000억원을 돌파했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의 전체 TDF 수탁고는 1조5000억원을 넘어선다. 시장 점유율이 작년 말 12.5%에서 13.4%로 0.8%포인트 상승했다.

KB자산운용 측은 “지난 2년간 수탁고 증가 규모를 놓고 보면 전체 TDF 운용사 중 1위”라고 말했다. TDF 업계 상위 5개 자산운용사 가운데 연초 이후 점유율이 높은 곳은 KB자산운용이 유일하다.

이는 변동성 장세에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 덕분이라고 KB자산운

용 측은 설명했다. ‘KB온국민·다이나믹TDF’ 전체 빈티지의 1년 수익률은 평균 18%를 웃돌 정도로 안정적인 성과를 냈다. 주식 비중이 가장 높은 ‘온국민TDF2055’의 경우 1년 수익률이 약 27%에 이른다.

KB자산운용은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 ‘KB온국민 TDF’와 ‘KB 다이나믹 TDF’ 등 두 종류의 TDF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KB 온국민 TDF는 패시브형 펀드로, 보수가 저렴하고 변동성이 낮아 장기 투자 시 높은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KB 다이나믹 TDF는 시장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액티브형 펀드로, 상황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과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한다. /허정윤 기자

온누리상품권 ‘현금깡’ 하면 환수...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

중기부 ‘부정유통 개선방안’ 1차 5억 이상 고액매출 의심 7곳 고발 이달 말까지 의심점포 추가조사 부당이득 댄 가맹점 제한기간 확대 의심거래 단속 ‘월’ 단위로 단속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안내표지가 설치 돼 있다. /뉴스시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우선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을 기록, 상품권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7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행정조치했다. 또 다른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11월 말까지 월 1억원 이상 거래 점포 347곳과 주류 소매 의심 점포 87곳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한다.

관련 법령을 고쳐 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하면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을 늘리고 소상공인지원 사업 참여도 제한한다. 다만 법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필요해 소급적용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고액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1차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 올해 안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제도개선,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달 1일 온누리상품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이 가운데 13곳에서 부정유통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브로커 거래, 자전거래가 대표적이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곳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주류업종 등이 부당하게 가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에 따르면 적발한 고액매출 가맹점들의 경우 대규모 거래를 한 후 취소하거나 가맹점간 자전거래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급격히 부풀려 단기간에 월별 최대 회전한도까지 늘리는 편법을 썼다.

원 실장은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금융결제원의 FDS를 통해 고객의 몽치거래와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있지만 연간 1회다보니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를 월 단위로 단속하고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에 대해서 이날부터 즉각 확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진공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1개 팀을 향후 3개팀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최대 회전한도 기준을 매년 회전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매출 1억원 이상 가맹점에 대해선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하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허위가맹 등록을 막기 위해 가맹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등록 절차를 도입하고 신청방식도 개편한다.

원 실장은 “가맹점 등록 이후에도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소진공, 시장상인회와 협력해 매달 정기적으로 관할 시장을 돌며 가맹점 등록 요건을 중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전국상인연합회는 중기부 대책과 별도로 지난 8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한 자정 선언을 했다.

상인연합회는 전국 17개 지회에 부정유통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이달 말까지 전국 개별 시장에도 자체 시장감시단을 뒤 부정유통 신고·현장확인·단속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원 실장은 “현재 부정유통 문제는 종이류 상품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향후 카드형 등 디지털 상품권이 늘어나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엔 지류와 상품권 발행 비율이 3대 7정도다. 이에 앞서 내달 중으로 온누리 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94년 韓 물류 근대화 이끌어... 자긍심 갖자” 기보, 태국에 혁신중소 지원 노하우 전수

CJ대한통운 창립 94주년 행사 장기근속자 350명에 포상 진행



신영수 대표(가운데)가 우수한 성과로 'CJ대한통운 Awards'를 받은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창립 94주년을 맞았다.

신영수 대표는 창립 행사에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속에서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창립 94주년을 맞아 지난 8일 서울 종로 본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신 대표와 경영진, 수상자와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격의없는 소통을 위해 대표이사 기념사 낭독 대신 신 대표가 임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신 대표는 이날 임직원들과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CJ대한통운은 지난 94년간 대한민국 물류 근대화를 이끌어온 기업”이라면서 “회사의 주역으로써 자긍심을 갖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근원적”이라며 “우리의 미래 생존을 고민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 앞서 40년 근속 1명을 포함해 350명의 장기근속자에 대해 포상을 진행했다. 또 ‘CJ대한통운 Awards’를 통해 총 6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과 조직을 시상했다.

84년 입사한 김석준 지사장은 지난 40여년 간 회사와 물류산업의 발전에 함께 하며 이를 지켜본 산증인으로, 특별휴가와 휴가비 1000만원을 받았다.

올해 CJ대한통운은 첨단 물류기술과 물류컨설팅 역량에 기반해 3자물류 신규수주를 확대했다. G마켓 스타배송을 시작으로 신세계 그룹과의 물류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대규모 플랜트와 전투기 등 특수화물 운송과 배터리, 의약품 물류 등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성과를 나타냈다. 미국 물류센터 착공 등 북미 시장 공략에 한층 속도를 내는 한편 동남아와 미국, 일본 역직구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글로벌 확대에도 힘을 쏟았다. /김승호 기자

부산 본점에서 태국 재무차관 간담회

기술보증기금이 태국에 기술금융 및 혁신중소기업 지원 노하우를 전수한다.

기보는 지난 8일 부산 본점에서 태국 재무부 차관 방문단과 간담회를 열고 태국에 기술금융제도 전수를 확대하기 위해 태국신용보증공사(TCG)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태국 방문단은 한국의 신용보증제도 연구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보교환 등을 위해 내방했다.

기보와 TCG는 간담회 개최를 통해 양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모범사례에 대해 공유하며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서 진행된 양해각서 체결식은 태국 재무부 차관, TCG 이사장을 비롯해 총 22명의 방문단이 참석했다.

MOU에 따라 기보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및 기술보증 등의 정보 교환 ▲기술평가 방법론 전수 ▲태국 진출 한

국기업을 위한 태국기업과의 네트워킹 및 투자유치 기회 발굴 지원 등 양국의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보는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해외협력 우수사례와 기술거래사업·글로벌 기술이전 파트너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TCG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가 동남아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2016년과 2017년 기획재정부의 해외 지식공유 프로그램(KSP)을 통해 TCG에 기술평가 및 기술보증제도를 전수했고, 2022년부터 매년 실무자워크숍 개최를 통한 지식 교류로 태국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기술금융 노하우와 지원제도를 태국에 전수하며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귀뚜라미, 김장나눔 등 소외계층 봉사

가스안전공사와 18년째 선행

귀뚜라미그룹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18년째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며 지역 사회에 희망을 전하고 있다.

귀뚜라미그룹은 가스안전공사와 ‘제18회 워밍업 코리아(Warming Up! Korea) 연합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첫 호흡을 맞춘 뒤 매년

진행하고 있는 워밍업 코리아 연합 봉사활동은 가정용보일러 선도기업인 귀뚜라미보일러와 가스 안전 전문가인 가스안전공사가 지역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생활밀착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12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올해 연합 봉사활동은 양측 임직원 60여 명이 참가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활동과 저소득 가정 주거

환경개선 활동을 펼친다.

첫 날에는 김장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서 김장 나눔 활동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민주평통 진천군협의회, 덕산읍 새마을회 회원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절임배추 300포기에 갖은 양념을 정성껏 버무려 김치를 담근 뒤 밀폐 용기에 포장한다. 완성된 김치는 충북 진천군 소재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1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업무자동화 범위 10개 추가적용

월간 약 3000시간 절감 효과 기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업무자동화(RPA) 적용 범위를 확대해 10개 업무에 추가 적용한다.

11일 소진공에 따르면 기관은 올해 3월 재가지원사업 소상공인 확인서류 발급, 컨설턴트 지출결의작성 자동화 등 5개 업무에 RPA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란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규칙적인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을 적용해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일례로 지원사업 구비서류 발급, 수당 지급처리, 지출결의 전표처리 등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행정작업에 RPA를 적용해 투입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번에 적용한 업무는 전직장려수당 지급 처리 자동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서류 검토 자동화 등으로 월간 약 3000시간의 업무시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소진공은 내부 의견수렴 및 외부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RPA를 확대해 업무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추진해 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농식품부 “산단 내 수직농장 설치 허용… 동반성장 기대”

오늘부터 1315개 산단 입주 가능
고품질 원료·소재 작물 연중생산
인접 공장서 가공제품 제조해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생태계 강화

이달부터 산업단지 내에 스마트팜의 한 갈래인 수직농장 설치가 허용된다. 이는 정부가 농업 및 후방산업 규제개선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물로, 농산물 생산시설이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된다. 이를 통해, 그간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온 수직농장 산업은 일자리 창출, 미래농업 확산, 에너지 효율화 등의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의 입주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또는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3월26일 경기 평택에 자리한 수직농장 전문기업을 찾아 시설물을 둘러보고 있다. /농식품부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부문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수직농장이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

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10월)했다.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비롯해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또 K-수직농장 세계화 프

젝트를 담은 ‘2025년도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개선과 지원에 힘입어, 전북 익산 소재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식품업계는 그간 산업단지를 활용한 수직농장 사업모델을 정부와 협의해 왔다.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안정적으로 연중 생산하게 된다. 또 인접한 공장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제조해,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동반성장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산업집적법 시행령,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농식품부의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빠르게 대응한 덕에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직농장 산업의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ICT)·로봇·센서 등의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49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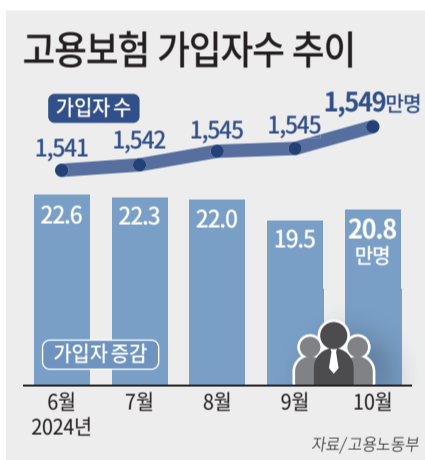
고용부 ‘올해 10월 노동시장 동향’
지난해비 1.4% 늘어… 9개월 만 반등
추석 명절 영향 구직급여 신청 사례 ↑

올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 증가하며 9개월 만에 반등했다. 반면, 건설업 가입자는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5개월 연속 감소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9만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4% (20만8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가폭은 올해 1월 34만1000명으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5월 24만명, 6월 22만6000명, 7월 22만3000명, 8월 22만명, 9월 19만5000명으로 8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달 소폭 반등했다.

업종별로는 올해 건설업 고용보험 가



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5000명 감소하며 1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은 지난 5월 8000명, 6월 1만명, 7월 1만2000명, 8월 1만3000명, 9월 1만5000명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하반기 건설업 업황 전망이 밝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5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명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어난 반면, 섬유, 의복, 모피 등에서는 감소했다.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 수는 8000명 줄어들며, 지난해 10월부터 1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9900명) 증가했다.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해 대비 2만1000명 증가한 58만7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지급액은 1조6억원으로 9.9%(903억원)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올해 10월의 경우, 추석 명절이 9월 중순에 있었기 때문에 10월에 구직급여 신청이 늘어난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기자 kdh@

강경성 “세계 5대 수출강국 향해 총력”

(코트라 사장)

“수출 주체·품목·시장 발굴” 강조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사진)이 11일 취임,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2차관과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역임한 강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세계 5대 수출강국, 투자대국,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를 향한 코트라의 시대적 소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사장은 “수출 5강 도약을 위해 수출의 주체·품목·시장을 새롭게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며 “혁신기술기업은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애로해소 등 수출 전 과정



을 연속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바이오·방산·서비스 등 전략 산업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별 특성에 특화된 전문 수출지원 서비스를 우리 기업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변하는 경제통상 환경과 관련해서는 “해외의 위기신호와 시장기회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고 깊이 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세계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글로벌사우스 부상 등 지역별 기회요인이 우리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략수립과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환경부,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조성

1580억 규모… 올해 300억 투자

환경부는 1580억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조성하고, 올해 안으로 3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 기업이 수주한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해 국내기업의 수주 및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전 세계적인 녹색 시장의 급속한 팽창에 대응하고, 정부 주도 펀드 조성을 통해 녹색 산업 분야의 해외 사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해외 사업 투자와 PIS펀드(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관리 경험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 조성 및 운용의 관리기관으로 선정해 펀드 조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달 31일 1580억원 규모(정부 출자 1110억원, 민간 투자 470억원)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조성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3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1000억원을 유치해 이번 1호 펀드와 함께 총 4000억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1호 펀드 운용사인 한화자산운용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해외 폐기물 매립가스 발전 사업에 투자를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000억원 규모의 2호 펀드가 조성되며, 내후년인 2026년에는 500억원 규모의 3호 펀드(프로젝트 펀드)가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가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대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급성장하는 전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수주지원단 파견 등 현장 지원까지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환경부,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 등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돼지 사육 두수가 2만5000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 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5개의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환경부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를 규정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관리를 위해 생산실적등록부의 설치·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절차를 명시했다.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과징금 감면 기준, 감면 대상, 감면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았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한 평가계획 수립과 운영 실적 평가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세종=김대환 기자



바르셀로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5

MOBILE WORLD CONGRESSES BARCELONA 2025

세계 최대의 모바일 산업 박람회
최신 모바일 기술, 혁신 및 산업 동향, 5G, 인공지능(AI),
IoT, 디지털 헬스케어, 최신 제품 전시 및 발표, 글로벌 네트워크

개최 장소 : 스페인 바르셀로나
[Spain Barcelona Fira Gran Via]

개최 일자 : 2025년 3월 3일 (월) ~ 3월 6일 (목)



국제 방위 전시회 및 컨퍼런스 2025

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 2025

중동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
방위 산업 & 정부 & 군대 및 군인 최신 방위 기술 및 장비,
글로벌 네트워크, 기술 발표 및 세미나

개최 장소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Abu Dhabi National Exhibition Centre (ADNEC)]

개최 일자 : 2025년 2월 17일 (월) ~ 2월 21일 (금)



프랑스 파리 항공 에어쇼 2025

INTERNATIONAL PARIS AIR SHOW 2025

세계 최대 항공우주산업 전시회 '파리에어쇼 2025'
항공기 제조업체 & 방위 산업 & 우주 산업 & 부품 및 장비
비즈니스 및 일반 항공기, 연구 및 개발

개최 장소 : 프랑스 르부르제
[Parc des Expositions du Bourget]

개최 일자 : 2025년 6월 16일 (월) ~ 6월 22일 (일)

www.snmiles.com

MICE, 일반 여행, 박람회 및 전시회 참관

비즈니스 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에스앤마일즈**



QR코드 스캔

카카오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울산시, 내년 예산 5.1兆 편성... 복지·미래 먹거리 등 강화

(지난해비 7.6% ↑)

국비 증가, 지방세입 여건 개선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 적극 반영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집중 복지·민생 분야에 1.7兆 투입



울산시는 총 5조1578억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는 총 5조1578억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2025년 본예산은 2024년도 4조 7933억원 대비 3645억원(7.6%)이 증가한 금액으로, 국고보조금, 보통교부세 등 국비 증가와 지방세입 여건 개선이 반영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64억원, 특별회계 681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체감형 정책인 울부심 사업을 비롯한 생활 밀착형 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또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강화와 주력산업의 경쟁력 향상, 이차전지와 수소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에도 중점을 뒀다. 아

울러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예산안은 ▲복지·민생 ▲환경·녹지 ▲도시개발 및 사회 기반 시설(SOC) ▲경제·미래·신산업 ▲재난·재해·안전 ▲문화·체육·관광 등 6개 분야로

편성됐다. 분야별 세부사업을 보면 '복지·민생 분야'에 1조7022억원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94억원, 임산부·영아·고령자 교통약자 이동 추가 지원 26억원 등이다. '환경·녹지분야'에는 2875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도시 울산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한다. 주요 사업은 2028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추진 131억원, 산

림녹지관리센터 건립 43억원 등이다. '도시개발 및 사회 기반 시설(SOC 분야)'에는 5243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200억원,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100억원, 디지털로 만든 열린 울산 미디어파사드 설치 83억원 등이다.

'경제·미래·신산업 분야'에는 3644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지역 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772억원, 수소도시 조성 및 수소버스 보급 168억원,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 학관 건립 99억원 등이다.

'재난·재해·안전분야'에는 8086억원을 편성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며, '문화·체육·관광분야'에는 2391억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콘텐츠 확충과 기반 시설(인프라)을 조성한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제252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확정될 예정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 농특산물 450 품목 30% 할인

경남도는 e경남몰에서 시군 인기 농특산물 450여 품목을 시중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남 우수 농특산물' 기획전을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개최한다.

경남 우수 농특산물 기획전은 복잡한 유통 단계를 줄여 도민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경남 농특산물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 기획전은 e경남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경남 농특산물 450여 품목과 김장철을 앞두고 높아진 김장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김장채소 전용관도 개설 운영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김해시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해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된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 행안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8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 책임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다. 매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재난안전관리 6개 분야, 38개 지표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전남도,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18개 시·군, 65개소 '전국 최다' 선정

농번기 돌봄지원 대상 아동연령 확대 여건개선에 총 21.1억 예산 투입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2025년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에 18개 시·군, 65개소로 전국 최다 선정됐다.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은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농촌 아이돌봄 ▲보육 시설이 부족한 읍·면을 이동식 차량으로 방문해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찾아가는 돌봄교실 ▲농번기 4~8개월동안 주말 아이돌봄방 운영을 지원하는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의 대상 아동연령을 기존 2세~초등 2학년에서 2세~초등 4학년으로, 운영 기간을 기존 4~8개월에서 4~10개월

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에서는 농촌 아이돌봄 28곳, 찾아가는 돌봄교실 3곳, 농번기 돌봄지원 34곳이 선정돼 총 21억1800만원의 예산을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영농철 여성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전남도 농가도우미(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등 농촌지역에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촌 보육환경을 촘촘하게 살펴 보육사각지대가 없는 가족친화적 농촌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북 어업인 "日 암컷대게 유통 막아달라"

대게어업인연합회, 생존권 보장 요구

5개월간 금어기 마치고 11월부터 대게잡이가 본격 시작되었지만 영덕 및 울진 대게 대게잡이 어민들 깊은 시름에 빠져 들고 있다.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는 지난 7일 영덕군 강구수협에서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김해성), 강구수협장(김성식), 경북도청 어업관리팀장(최재성), 울진해경, 대게어업인연합회원들이 강구수협 대회의실에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북 대게잡이 어업인들은 충분한 협의나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수입 허가한 일본산 암컷대게(일명 뺑계) 국내 유통으로 대게 어업인들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에는 (사)경상북도 대게 어업인 연합회(회장 김해성)는 정부(식약처)의 수산업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가 심각하다고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영덕대게 금어기 해제 후 3일 첫 위판 광경 /영덕군

아울러 김해성 회장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6조(포획·채취금지) 등을 유명무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부산세관을 통해 약 20톤의 일본산 스노우 크랩(뺑계)이 인천, 포항, 대구 등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일본산 스노우 크랩(뺑계) 유통 증명을 악용해 국내 불법 조업한 암컷대게(뺑계)와 혼합되어 시중에 유통될 경우 단속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수입한 것 이라 하고, 관할 부처인 해수부는 방관하고 있어 대게 어업인들은 힘들어 하고 있다.

/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부산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박차

캠코-BNK금융그룹과 '맞손'

부산시는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BNK금융그룹 등과 함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공 협업 부산지역기업 지속성장 및 고용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지역 내 경영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특화 지원을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캠코와 BNK금융그룹은 경영애로 상태의 부산기업을 위해 매년 최대 600억원 규모의 지

역특화 투자 및 고용 활성화 사업 지원을, 부산시는 '자산매입 후 재임대 사업'(S&LB) 임대료 지원 대상 확대 및 두 기관과 협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지원받은 기업이 부산시 고용정책사업(고용우수기업, 부산 50+ 인턴십, 청년고용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참여하는 경우 캠코로부터 연간 최대 4000만원의 임대료(이자) 감면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BNK금융그룹은 시 고용 관련 정책사업에 연간 최대 2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률 전국 1위

(5년 연속)

올해 최종 취업률 69.5%

경북교육청이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에서 5년 연속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

11일 교육부의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조사'에 따르면 경북 직업계고의 최종 취업률은 69.5%(전국 평균 55.3%)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공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를 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전국 최고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함께 발표된 경북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은 29.6%(전국 평균 48.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 경북의 직업계고가 '취업과 기성인 양성'이라는 직업교육 방향에 맞게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관련 분야에서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대구시 외국인 투자자에 대구 투자 홍보

대구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4(Invest Korea Summit 2024)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외신을 대상으로 대구 투자를 적극 홍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로, 대구시는 ▲'대구의 투자 매력' 발표 ▲외국인 투자기업 사절단 초청 산업시찰 ▲투자 홍보 및 상담 부스 운영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외국인 투자자와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시찰을 진행했다.

/대구=김준환 기자 kih9@

“과립과정·직접살균 차별화… 단백질 시장 독보적 1위”

Q 르포 | ‘하이문’ 생산,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가보니

국내 단백질 보충제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독보적인 1위를 수성하는 곳이 있다. 바로 일동후디스다. 일동후디스의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하이문)’는 2020년 출시 후 현재까지 누적 매출 5000억원을 돌파하며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동후디스는 단백질 시장 성장세에 따라 지난해 강원도 춘천시 거두농공단지 내에 춘천 제3공장(춘천공장)을 건립하고 최근 가동을 시작했다.

지난 7일 방문한 일동후디스 춘천공장은 대지면적이 약 3만976㎡에 달하며, ‘하이문 케어메이트’ ‘하이문 액티브’ 등 ‘하이문’ 제품군을 중점적으로 생산한다.

공장은 분말동과 멸균동 2개동으로 이뤄졌으며, 총 3층으로 돼 있다. 제품들은 세균 유입을 막기 위해 파이프 라인을 따라 이동하며 톱다운 방식의 자동화 공정으로 생산된다.

먼저 방문한 분말동에서는 물과 우유 등에 타서 먹을 수 있는 하이문 분말 제품과 베트남에 수출하는 ‘하이키드’ 제품을 생산한다. 기자가 방문했을 때에도 하이키드가 생산되고 있었다. 제품은 초유성분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영유아 영양식으로 베트남에서 프리미엄식

으로 통한다. 일동후디스의 수출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0% 가량으로 향후에도 베트남 시장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원료 준비실에서 이물질을 걸러낸 가루들은 원료 분쇄실로 이동하며 진공상태에서 혼합하는 공정을 거치면, 과립공정에 들어간다. 과립공정은 일동후디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 중 하나로 물에 쉽게 용해되며, 소화흡수를 높일 수 있다.

박성훈 일동후디스 춘천공장장은 “분말과 분말 사이에 물을 뿜어 미립자를 크게 키우는 과립화를 한 뒤 다시 이를 건조하고 냉각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용해성이 뛰어나며,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전기 방지 공정을 거친 캔에 분말 제품이 담기게 된다.

멸균동으로 향하는 도중 과학실험실처럼 보이는 곳에서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기한을 정하는 가속실험을 진행하



멸균동에서 하이문 액티브가 생산되어 나오고 있다.



분말동에서 과립공정을 거치고 있다.

/일동후디스

분말동서 ‘하이키드’ 생산·수출 병원장비 ‘바텍’으로 안전성 실험 균 발견엔 생산 중단, 전량 폐기

멸균동서 프로틴밸런스 등 제조 140도 ‘직접살균’ 영양손실 줄여 당노·암 환자식 등 개발 나서

고 있었다. 가속실험은 샘플 제품을 45도의 고온에 노출해 미생물이 발현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박 공장장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인 ‘바텍’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만약 균이 발견되면 그 즉시 라인 생산을 중단하고 출고 대기인 제품은 전량 폐기

하게 된다”고 말했다.

멸균동에서는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 음료’ ‘하이문 액티브 음료’ ‘하이문 케어메이트’ 등의 음료를 제조한다.

분말 형태의 원료들을 배합해 물에 녹이는 전처리 공정에는 정수과정을 거친 상수를 활용한다. 그리고 테트라팩 핵심 기술인 ‘직접 살균(다이렉트 스티밍 인젝션)’을 거친다.

박 공장장은 “140도의 고온에 제품을 4초 가량 노출하는 방식이다”라며 “간접 살균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직접 살균을 하면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유통기한내에 침전이나 색상변화가 덜하다”라고 말했다.

작업이 끝나면 입자 균질화 작업에

들어간다. 이후 소비기한을 찍고 포장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일동후디스는 분말 제품 생산에서는 과립과정을, 음료 제품 생산에서는 직접 살균이 차별화 지점이라며 깔끔한 맛과 영양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일동후디스 측은 단백질 제품 ‘하이문’을 필두로 내년부터는 시니어를 타겟으로 한 특수 분유 ‘하이문 케어메이트’ 확대에 나선다.

회사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맞춰 환자영양식 개발에 나섰다”라며 “식약처를 거친 당뇨 환자식부터 내년에는 암 환자식 개발에도 나설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호주 대형마트 콜스, 비비고 판매… K-푸드 영토 확장

CJ제일제당, 1위 업체 이어 2위 입점 만두 3종 비롯 주먹밥·붕어빵 등 7종 4위 마트 IGA도 내년 초 입점 확정

CJ제일제당은 호주에서 두번째로 큰 대형마트 체인인 ‘콜스(Coles)’에서 비비고 제품 판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입점한 1위 마트 ‘울워스(Woolworths)’에 이어 2위 업체까지 입점하면서 현지 메인스트림 유통시장에서 절반이 넘는 판로를 확보했다.

판매 제품은 비비고 만두 3종(돼지고기&부추, 야채&옥수수, 김치)을 비롯해 주먹밥, 붕어빵, 핫도그 등 7종이다. 이 중 주먹밥, 붕어빵, 핫도그는



호주 콜스(Coles)에 입점하는 CJ제일제당의 비비고 K푸드 제품 7종

/CJ제일제당

현지 메인스트림 유통채널에서는 이번이 첫 선을 보이는 제품으로 해외에서 한국 가공밥과 길거리 음식(K-스트리트푸드)에 대한 관심 속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CJ제일제당은 현지 4위 대형마트인 ‘IGA’에도 내년 초 입점을

확정 지었다. 울워스·콜스·IGA는 호주 식료품 유통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모두 합쳐 현지에 30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비비고 K-푸드의 인지도와 소비자 경험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를 비롯한 오세아니아는 CJ제

일제당이 ‘K-푸드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주요 지역이다. 현재 호주 ‘울워스’와 ‘코스트코’, 편의점 체인 ‘이지마트’, 뉴질랜드 대형마트 체인인 ‘뉴월드’와 ‘팩앤세이프’ 등 주요 유통채널에서 비비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SSG닷컴 ‘피아제’ 신상 단독출시

SSG(씨)닷컴이 국내 e커머스 업계 최초로 스위스 명품 시계·보석 브랜드 ‘피아제’의 주얼리 신상품을 단독 선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SSG닷컴 ‘피아제 브랜드관’에서 피아제 포지션 컬렉션의 목걸이는 392만 원대에, 팔찌는 680만 원대에 선보인다. 루비 원석이 세팅된 순금 표면에 장인의 수작업으로 불규칙한 줄무늬를 새겨 유니크함을 강조했다.

SSG닷컴은 피아제 주얼리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24일까지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피아제 브랜드관’ 상품 구매 고객 대상으로 키링, 시계 트래블 케이스 등 브랜드 사은품을 증정하며 피아제 쇼핑백이 동봉된 선물 포장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하이트진로 ‘캐시아드 빈야드’ 독점 출시

美 나파밸리 프리미엄 와인 2종

국내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미국 나파 밸리 지역의 프리미엄 와인 ‘캐시아드 빈야드’ 2종을 국내 독점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캐시아드 빈야드 호라 나파 밸리 2020’와 ‘캐시아드 빈야드 파운딩 브라더스 나파 밸리 2020(사진)’은 캐시아드 빈야드의 첫 출시 빈티지이다. 두 제품 모두 최고급 품질의 포도만을 사용하며 수확 후 발효조에서 최대 5일간 저온 침용을 거쳐 30일 후 뉴 프렌치 오크(프랑스 중부 숲에서 새로 자란 참나무로만 만드는 통)에서 잦산



발효한다. ‘캐시아드 빈야드 호라 나파 밸리 2020’의 ‘호라’는 그리스 신화 속 계절의 변화를 관장하는 신의 무리로 그 중 가을을 관장하는 여신을 라벨 디자인에 적용, 가을에 수확한 과일과 포도밭의 우아함, 조화로우름을 표현했다.

‘캐시아드 빈야드 파운딩 브라더스 나파 밸리 2020’의 ‘파운딩 브라더스’는 와이너리의 기반을 닦은 ‘레니 형제’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은 와인이다. 캐시아드 빈야드의 가장 전형적인 와인이다. 55% 카베르네 소비뇽, 40% 메를로, 5% 카베르네 프랑 품종으로 검은 체리, 초콜릿과 같은 향과 유칼립투스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CU, H 돈키호테에 PB상품 추가 수출

HEYROO 치즈맛 라면 등 판매

CU가 국내 편의점 업계 최초로 일본 최대 잡화점인 돈키호테에 PB상품 전용 매대를 설치하고 다양한 PB상품을 추가로 수출한다고 11일 밝혔다.

CU는 지난 2022년 전문무역사 지위를 처음으로 획득한 이후 유통업계 최초로 중간 수출 업체를 거치지 않고 여러 해외 유통채널과 직거래를 통해 PB상품을 수출하고 있다.

CU는 국내 유통사 최초로 일본 주류 유통업체 돈키호테에 PB상품을 출시했다. CU는 올해 4월부터 일본 전역의 450여 돈키호테 지점에서 HEYROO 치즈맛 라면의 판매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3만개가 수출됐으며 별도 흥

보 없이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이번에 전용 매대까지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돈키호테에는 이미 라면, 과자, 주류 등 한국의 인기 식음료들이 입점돼 있었지만 국내 편의점의 PB상품이 판매된 적은 없었다. CU는 지난해 초부터 약 1년간 돈키호테와 수 차례 상품 품평회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PB상품의 수출을 가능케 했다.

이번에 수출되는 CU의 PB상품은 ▲HEYROO 치즈맛 라면 ▲HEYROO 청양고추 라면 ▲HEYROO 김부각 득템 ▲HEYROO 버터스틱 쿠키 ▲HEYROO 초코칩 쿠키 ▲HEYROO 카라멜 러스크 등 총 15종으로 일본 전역의 600여 개 지점에서 판매 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갤러리아백화점 박은영의 ‘동파육’ 팝업

갤러리아백화점은 11일 서울 명품관과 수원 광고점에서 박은영 중식 셰프의 동파육 만두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갤러리아가 단독으로 선보이는 동파육 만두 팝업은 박은영 셰프와 육즙 그릴만두로 유명한 ‘구오 만두’가 협업한다.

박 셰프는 최근 인기를 끌었던 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닉네임 ‘중식여신’으로 출연해 먼저 1차 예선을 통과하며 주목을 받았다. 현재 홍콩의 한 중식당에서 근무 중으로 다른 출연자들과 달리 국내에 별도 매장이 없다. 이번 팝업을 통해 박 셰프의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게 됐다.

/최빛나 기자

한미약품, 개량·복합신약 출시 속도... “10년 내 5조 매출”

기업설명회

박재현 대표 등 핵심 경영진 참석
혁신신약 중심 중장기 성장 실현
글로벌 본부 통해 마케팅 강화

한미약품이 10년 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미약품은 11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호텔에서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열고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비롯해 최인영 R&D 센터장, 김나영 신제품개발본부장, 박명희 국내사업본부장, 신해곤 글로벌사업본부 상무 등 한미약품에서 핵심 사업들을 맡은 본부장들이 직접 참석했다.

한미약품의 앞서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액은 1조1144억원으로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857억원으로 전년 동



한미약품 본사 전경. (왼쪽사진) 박재현 대표

/한미약품

기 대비 23% 성장한 규모다.

다만 한미약품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으로는 매출 3621억원, 영업이익 510억원, 순이익 350억원 등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7%, 11.4%, 42.3% 감소했다. 직전 분기인 올해 2분기 실적과 비교해도 각각 4.2%, 12.3%, 25.3% 줄었다.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은 3분

기 연결기준 매출 843억원, 영업이익 150억원, 순이익 128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분기는 영업일수 감소, 중국 현지 자연 재해 등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다소 주춤했다는 것이 한미약품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약품은 현재 지주회사와 겪고 있는 경영권 갈등 이슈가 아닌 한미약품 본연의 사업 성과와

미래 계획을 3단계에 걸친 ‘중장기 전략’으로 공유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한미약품은 오는 2025년까지 국내 시장에서 초격차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한미약품은 다음 단계로는 2026~2028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면 2029~2033년 혁신신약 중심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우선 올해 전문의약품 시장 초격차 1위 지위를 지속하고 매출 및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올해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한미약품은 원외처방 실적을 꾸준히 성장시켜 왔다. 1분기 2599억원, 2분기 2595억원, 3분기 2679억원으로 매분기 성장세를 이어왔다. 로수젯, 아모잘탄, 에소메졸 등 만성질환 분야 치료제가 선전했다는 것이 한미약품 측의 설명이다. 특히 로수젯의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전문 의약품 가운데 최초로 원외처방 2000

억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새로운 개량·복합신약의 연이은 출시를 예고하며 견고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오는 2025년에는 ‘다파론F’가블록버스터 제품으로 등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약품은 최근 다파글리플로진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라인업인 ‘다파론패밀리’ 6종 출시하고, 처방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판매 전략에 돌입한 바 있다.

이밖에 한미약품은 신약개발 명가라는 역량을 쏟아내기 위해 ▲신제품 개발본부 및 제제연구소 ▲ R&D 센터 ▲글로벌본부 등을 중심 축으로 내세웠다. ‘신제품개발본부 및 제제연구소’는 신규 용법, 용량 등 새로운 적응증을 위한 개발에 집중한다. ‘R&D센터’는 새로운 모달리티로 퍼스트인클래스를 정조준한 파이프라인 구축에 힘쓴다.

한미약품은 ‘글로벌본부’를 통해서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신제품

애경산업

씨솔루션 토너·세럼

생활뷰티기업에 경산업은 기능성비건 화장품 브랜드 닷솔루션에서 ‘씨솔루션 히알루론시카 수딩 스킨케어 버블 토너와 세럼(사진)’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모두 500달톤의 ‘저분자 히알루론산’, ‘병풀추출물’과 ‘병풀의 핵심 ‘시카 액티브 테카’ 성분,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관리해 주는 ‘징크 피씨에이’ 등을 함유하고 있다.

두 제품 모두 인체적용시험에서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청하 기자

KT&G “2027년까지 ROE 15% 달성, 3.7조 주주환원”

기업가치 제고계획 발표
올해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

KT&G가 2027년까지 ‘ROE 15% 달성’, ‘3조7000억원 규모 주주환원’을 골자로 한 ‘KT&G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밝혔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은 ‘수익성 향상’, ‘자산 효율화’, ‘재무 최적화’를 통해 2027년까지 ROE(자기자본이익률)를 현재 10%수준에서 15%까지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KT&G는 본업 중심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회사의 3대 핵심사업(해의퀵런·NGP·건기식)을 축으로 각 사업 내 중점 영역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사업운영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 저수익·비핵심 자산의 구조개편을 통해 약



KT&G 사옥 전경

1조원 규모의 누적 현금을 확보하고, 해당 재원은 성장투자과 주주환원에 활용해 자본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생산 파트너십 강화 등 Capex 투자전략 혁신을 통해 투자 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KT&G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Capex 투자계획(2023년~2027년)을 효율화해 2조4000억원 규모로 조정했다. 투자 규모 효율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했던 생산 능력 확대와 투자 기대수익률은 기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의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된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약 2조4000억원의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 1조3000억원원 등 총 3조7000억원에 달하는 주주환원이 추진된다. 이에 더해 자산 효율화로 창출된 재원을 추가 주주환원에 활용하는 ‘KT&G 플러스 알파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추가 재원은 자사주 매입 및

즉시 소각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며, 강화된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2027년까지 발행주식총수(1억3382만 2497주·2023년 기준)의 20%가 소각될 전망이다.

새로운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따라 올해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규모도 확대된다. 지난 7일 KT&G 이사회는 비핵심·저수익 자산 유동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 중 1500억원을 활용해 연내 자사주 135만주의 매입 및 소각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KT&G의 올해 총 주주환원 규모는 기보유 자사주 소각을 포함해 1조4000억원에 육박하고 총 주주환원율은 100%를 상회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규모 또한 2023년 발행주식총수 대비 약 6.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듀켄바이오, 코스닥 상장 절차 돌입

증권신고서 제출... 143만주 공모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듀켄바이오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청신호를 켜다. 듀켄바이오는 금융위원회에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듀켄바이오는 이번 상장을 통해 총 143만 주를 공모한다. 희망 공모가는 주당 1만2300~1만4100원이다.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일반 청약 행사를 진행한다.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듀켄바이오는 상장을 통해 확보하는

공모자금을 ▲생산시설 확충 ▲연구개발 ▲운용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듀켄바이오는 방사성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투자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생산 시설은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듀켄바이오는 국내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제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공동개발한 치매 신약 ‘레켄비’가 오는 12월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어 향후 듀켄바이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청하 기자

GC녹십자, MSCI ESG평가 ‘A등급’

제품 안전·품질 등 고득점

GC녹십자는 공신력 높은 글로벌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SCI)이 실시한 2024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에서 직전 평가 대비 3단계 상향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MSCI 보고서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지배구조 ▲인적자원 개발 ▲제품 안전 및 품질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GC녹십자는 환경 부문에서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인 ‘ISO14001’을 획득하고, 전 사업장 환경영향실사를 통해 유

해물질 배출 및 폐기물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환경 경영 수준을 높였음을 인정받았다.

사회 부문에서는 인재 파이프라인 개발 전략을 가지고 임직원 성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해 인적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음을 높게 평가받았다.

GC녹십자는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주주 가치 제고 및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했다. 특히 사외이사 수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늘렸고, 산업 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이사회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청하 기자

LG생건

벨먼 바디워시·로션

LG생활건강은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벨먼’에서 목욕할 때마다 5성급 호텔의 고급스러운 향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바디워시 2종(사진)과 바디로션 1종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벨먼 시그니처 퍼퓸 앤 모이스처 바디워시’는 고급스러운 향기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하얀 거품이 머리 속에서 연상되는 비누향 계열의 ‘퓨어 머스크’ 향과, 숲 속 나무와 꽃 향기를 구현한 ‘어반 포레스트’ 향이 담겼다. 벨먼 바디로션으로는 퓨어 머스크 향 1종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들은 벨먼 독자 성분인 ‘보태닉에센스’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 성분은 시어버터를 비롯해 해바라기씨 오일, 레몬밤 워터, 올리브 오일, 아르간 커널 오일, 편백잎 추출물, 캐모마일꽃수 등을 함유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주제 : 초현실사회로 :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14:00~17:10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문의 :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18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초현실사회로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2024년 11월 20일(수) 오후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오비맥주, 미성년 음주예방 캠페인 '귀하신분' 전개
오비맥주가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역전할머니맥주'와 함께 미성년 음주 예방을 위한 '귀하신분' 캠페인을 실시한다. 구자범 오비맥주 정책홍보부문 수석부사장,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 역전할머니맥주 이병운 대표(왼쪽 첫번째부터)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비맥주



아산나눔재단, '대한민국소통어워드' 2관왕
아산나눔재단은 한국인터넷소통협회에서 주최한 '제17회 대한민국소통어워드'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산나눔재단은 '기업가정신'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튜브 콘텐츠로 선보인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공헌 부문과 콜라보 콘텐츠 부문에서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산나눔재단



KB증권, 인천 파인트리움에 '무지개교실' 개관
KB증권은 지난 7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파인트리움'에 23번째 국내 '무지개교실'을 개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무지개교실'은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진행했으며, 참가기관 공모부터 서류심사, 전문가 현장심사 등의 공정한 선발 절차를 통해 인천 '파인트리움'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하여 실의 놀이환경을 개선했다. /KB증권



롯데마트, '2024 세이브 레이스' 파트너사 참여
롯데마트는 지난 10일 나눔 마라톤 행사 '2024 세이브 레이스, 런 포 에브리 차일드'에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친환경과 나눔을 통해 미래세대를 지원한다는 이번 행사의 취지에 동참하고, ESG 경영 이념 실천과 더불어 많은 사람에게 보탬이 되고자 공식 파트너사로 동참하게 됐다. /롯데마트



한국타이어 임직원,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한국타이어는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나곡초등학교와 대전시 대덕구 새여울초등학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100여명은 무채색이었던 건물 벽을 근사한 미술 작품으로 바꾸며 온기와 희망을 채웠다. /한국타이어

현대차, 신년 카운트다운... "모든 고객 소원 이뤄지길"

'싱 유어 위시' 캠페인 전개
라이브 드론쇼, 공연 등 예정

현대자동차가 2025년 신년 맞이 카운트다운 캠페인을 시작했다. 새해 소망을 비는 노래 이벤트와 라이브 드론쇼, 공연 행사를 마련했다.

현대차는 11일 새해 소망을 비는 노래 이벤트와 라이브 드론쇼, 공연 행사 등으로 구성된 2025년 신년 맞이 카운트다운 캠페인 'Sing Your Wish' (싱 유어 위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수 카더가든(본명 차정원)이 참여한 음원 'Wish 2025'를 음원 사이트에 공개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고객이 카더가든의 목소리를 입혀



현대차의 2025년 신년 카운트다운 캠페인 'Sing Your Wish' 이미지.

'나만의 위시송'을 만드는 기회도 제공한다.

15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자양동 독섬한강공원 수변무대

에서 전기차의 V2L 기술을 활용해 조명을 밝힌 무대에서 카더가든의 공연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부터는 고객의 새해 소망을 주제로 드론 2000대를 동원한 라이브 드론쇼를 한다.

다음 달 2일에는 고객 참여 영상, 드론쇼 등으로 구성된 연말 카운트다운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한다. 약 3분 분량의 영상에는 고객 모두가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새해 바라는 일을 이뤄지도록 응원 메시지를 담을 계획이다.

현대차는 "카운트다운 캠페인 'Sing Your Wish'를 통해 고객 모두가 남은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이루고 싶은 소원이 모두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잡코리아 "2050 탄소중립 실현"

HR 플랫폼 기업 잡코리아가 2030년 탄소 배출량 42% 감축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11일 공식 선언했다.

잡코리아는 추후 모든 법인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고, 2027년까지 녹색프리미엄(100%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구매) 및 탄소배출권을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또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친환경 활동을 포함한 ESG 경영을 위해 환경보호, 인권, 정보보안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ESG 운영위원회를 출범한다. ESG 운영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씩 소집해 관련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준비 감시 등 ESG 경영 내실화를 위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혜민 기자 hyem@

"더 프레임'에서 박서보 화백 작품 만나보세요"

삼성전자 '묘법 No.34-79' 등 전시

삼성전자가 '삼성아트스토어'를 통해 단색화의 거장인 고(故) 박서보 화백의 작품 15점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삼성 아트스토어는 삼성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에서 제공되는 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다.

삼성전자는 ▲묘법 No.34-79(1979년 작) ▲묘법 No.900719(1990년 작) ▲묘법 No.081105(2008년 작) 등 3점을 포함한 총 15점을 '삼성 아트스토어'를 통해 서비스한다.

작품들은 강렬한 색감과 입체감 있는 질감, 일정한 간격으로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 아트 스토어'를 통해 단색화의 거장 고 박서보 화백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더 프레임'을 통해 만날 수 있는 '묘법 No.900719 (1990년 작)' /삼성전자

이들 작품은 국립 현대 미술관, 리움 미술관, 일본 도쿄도 현대 미술관(MOT), 뉴욕 현대 미술관(MoMA) 등 세계적 권위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박서보 화백은 한국 현대 미술계

를 이끈 단색화의 선구자로, 작가의 생각을 캔버스에 시각화하는 서양 미술과 달리 자아를 비워내는 예술인 단색화를 구체화하며 평생 묘법 제작에 몰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미국 록펠러센터 전시에서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더 월 올인원'을 통해 박서보 화백의 대표작을 146인치 4K 스크린을 통해 선보인 바 있다.

김용수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팀장은 "아트스토어의 사용자들에게 현대와 고전을 넘나드는 폭넓은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협업을 지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한화투자증권 특성화고 금융 멘토링

한화투자증권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Together Plus 금융 멘토링'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Together Plus'는 한화투자증권 임직원이 멘토가 돼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능기부 사회공헌 활동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7월 '취업 멘토링'에서 진로설계와 모의면접 등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이번 '금융 멘토링'에서는 학생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금융 이해도를 높이는 경제·금융 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한화투자증권 ESG 담당 애널리스트가 멘토가 돼 '지속가능한 미래와 ESG'를 주제로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금융 멘토링'에는 ▲삼일고등학교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영락의료과학교등학교 학생 약 100명이 온라인으로 3일간 참여했다. /원관희 기자 wkh@

박경국 "가스안전관리 대전환 나설 것"

31회 대한민국가스안전대상
글로벌 협력 등 미래 비전 제시

가스안전과 가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가스안전실천을 다짐하는 '제31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이 11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가스안전공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가스안전관리에 공헌한 100명과 3개 단체에 은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산업부장관표창,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상이 수여됐다.

올해 시상식에서 미래엔서해에너지 박영수 사장이 안전시스템 고도화와 안전문화 정착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훈격인 은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그밖에 씨티에너지 배정근 대표이사, 가스안전공사 윤종택 본부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대 회사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11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가스안전대상에서 대회를 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시대의 도래와 국민의 높아진 안전의식에 맞춰 가스안전관리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래지향적 가스안전관리 수립의 의지를 밝혔다. 박사장은 이를 위해 ▲디지털 및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적 안전관리 ▲수소경제를 위한 수소안전관리체계 내실화 ▲글로벌 협력과 연대 강화 등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안전 기관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토스증권 자립준비청년 금융 교육

토스증권은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 상담 전문 계열사 '토스씨엑스' 및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두 곳과 손잡고 지난 8일 자립준비청년 대상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 14명은 투자 기초 교육과 금융 기초 교육을 받고 토스증권 임직원의 멘토링을 받기도 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자립준비청년 생계 지원 목적으로 조성된 후원금도 전달될 예정이며, 희망자 대상 별도 전형을 거쳐 토스증권 인턴십 기회도 제공한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인사

- ◆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 채용 △정책보좌관(별정직 3급 상당) 안우철
- ◆ **대우건설** ◇보직 △재무전략본부장 전무 손원균 △플랜트사업본부장 전무 조승일 △해외사업단장 전무 한승 △주택건축사업본부장 전무 전용수 △대외협력단장 상무 이강석 △CSO 상무 신동혁(신임) △토목사업본부장 상무 심철진(신임) △조달본부장 상무 안병관 ◇승진(상무A) △안국진 △박병주 △장희진 △안병관 △김무성 △심철진 ◇승진(상무B) △박병철 △도정훈 △송호준 △정경서 △정태원 △정영훈 △강상준 △문범주 △박선하 △백성호 △김상엽 △임진혁 △황승욱
- ◆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급 인사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체육국장 강수상

부음

- ▲문종근씨 별세, 문종욱·문종윤(IM뱅크 홍보부장)·문서영씨 부친상=11일 오전 1시 50분, 경남 밀양시민장례식장(옛 세종병원) 제1호실(2층), 발인 13일, 055-354-444
- ▲최정민(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사)씨 부친상 = 울진군의료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13일, 054-785-7800

에몬스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 13년 연속 1위, 에몬스

약 7만 7천여명의 제품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전문가 조사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 '가정용가구 부문 13년 연속 1위' 기업 선정

Emons



Launching
• NEW TVCF SPECIAL SALE •

10.25 - 12.31



판교서 광화문까지 15분 만에 영화 속 ‘드론택시’ 서울하늘 난다

서울시, 내년 도심항공교통 실증 2030년까지 4곳에 주요시설 구축 실증~성숙 4단계로 나뉜 노선 구성 글로벌 ‘3차원 입체교통도시’ 도약

내년부터 SF영화 속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가 서울 상공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2030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상반기부터 여의도와 한강을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개최된 ‘UAM·드론·AI 신기술 협력 컨퍼런스’에서 서울 전역에 도심항공교통 체계를 구축해 ‘3차원 입체 교통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 담긴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시는 UAM 운항을 위한 필수 시설인 버티포트(정류장)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교통 연계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시범 및 초기 단계 운항을 위해 2030년까지 여의도, 수서, 잠실, 김포공항 총 4곳에 주요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단계별 활성화 시기에 따라 ‘실증~초기~성장~성숙’ 4단계로 나뉜 운



행 노선을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 킨텍스(고양)~김포공항~여의도공원, 잠실~수서역 총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실증할 계획이다. 시는 해당 기간 기체, 운항 관제 등 전반적인 운항 안전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초기 상용화 단계(2026~2030년)’에서는 여의도를 기점으로 UAM을 시범 운용한다. 시는 “김포공항~여의도~잠실~수서 등 한강 전 구간을 순회하게 될 것”이라며 “김포공항 버티포트와 연계해 비즈니스·이동 수요뿐 아니라 관광·의료용 노선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고 전했다.

시는 2030~2035년 한강과 4대 지천을 연결해 수도권에 있는 광역 노선을 구축하고, 사업 성숙기에 접어드는 2035년 이후에는 주요 도심을 연계한

간선 체계 및 수요자 맞춤형 노선을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광역 노선에는 상암·가산·광화문·왕십리·상봉 등 중간 거점 정류장이 추가돼 도심, 주거 지역 등 생활권이 연결되고 경기·인천공항과의 연계성도 높아진다.

예컨대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로 약 1시간 소요되는 판교~광화문역 25km 구간을 UAM으로는 약 15분 만에 이동 가능하고, 잠실~인천공항도 25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육군과 ‘서울형 UAM 도입’ 초기 단계부터 공역 관리, 비상 대응 체계 지원 등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고양시 “수도권 30분 생활권” 시대 열 것

GTX-A 내달 개통... 핵심 인프라로 대곡~의정부 교외선 20년 만에 개통 덕은역 신설... 서울-수도권 서부 연결

고양시가 교통 인프라 혁신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12월에는 GTX-A 노선의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과 20년 만에 재개통되는 교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덕은역이 포함된 대장흥대선도 연내 착공을 시작해 고양시와 수도권 북부 지역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오는 12월 28일 개통을 앞둔 GTX-A 노선의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파주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동탄까지 이어지는 82.1km의 고속 급행 노선으로 이 구간이 개통되면 16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향후 삼성역까지 전 구간 개통이 완료되는 2028년에는 수도권 북부에서 강남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해져, 수도권 전역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북부를 동서로 잇는 교외선은

2004년 여객 운항이 중단된 지 20년 만에 재개통된다. 교외선은 대곡, 원릉, 장흥, 송추, 의정부 등 6개 역을 연결하며 수도권 북부 주민들의 출퇴근과 여가 활동을 위한 핵심 노선이 될 전망이다.

덕은지구에 신설되는 덕은역은 대장흥대선의 핵심 정거장으로, 인근 주거지와 상업지구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대장흥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덕은지구, 흥대입구를 잇는 약 20km의 노선으로, 총 12개 역을 통해 서울 주요 지역과 수도권 서부를 빠르게 연결한다.

이동한 고양시장은 “GTX-A와 교외선 개통, 대장흥대선 착공으로 고양시가 수도권 북부 교통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대곡역과 킨텍스역을 중심으로 한 환승 체계를 확립해 수도권 30분 생활권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충, 복합개발 구상 용역 등 교통 연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인하대, IUT 개교 10주년... 2000여명 졸업

국내 최초 대학단위 교육 수출 성공 우즈벡 타슈켄트 대표 명문대 성장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 단위 교육 시스템을 수출하는 데 성공한 인하대학교가 올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인하대(Inha University in Tashkent·IUT) 개교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IUT 개교 이래 누적 졸업생은 약 2000명이다.

인하대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IUT 개교 10주년 기념식과 제7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IUT는 지난 2014년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에 만들어져 올해 개교 10주년을 맞았다. 국내 최초로 ‘4+0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3+1 방문 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하대

는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 단위 교육 시스템을 수출했다. 인하대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2018년 처음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2000여명의 학생이 IUT를 졸업했다. 졸업생 대부분은 현지 유명 IT기업, 국영기업, 정부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개교 10주년 기념식에는 현지를 대표하는 명문대학으로 성장한 IUT를 축하해주기 위해 인하대 조명우 총장, 김웅희 대외부총장, 이화석 정석인하학원 상임이사, 김두한 인하대 총동창회장, 원도연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 티모시 스마트(Timothy Smart) 주우즈베키스탄 영국대사, 우즈베키스탄 세르조드 세르마토프 디지털기술부 장관, 무자파르 잘라로브 타슈켄트 인하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현진 기자 lji@

서울시 음부즈만위원회, 시민고충 해소 박차

고충민원 처리·직권 감사 활성화 등 역울한 시민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서울시 시민감사음부즈만위원회(음부즈만위)가 고충민원 적극 처리와 직권 감사 제도 활성화로 시민 권익 제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1일 음부즈만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정·처리 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4건, 기타 8건을 포함 총 26건을 접수해 24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고, 2건은 추진 중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는

고충민원 처리는 음부즈만위의 고유 업무인데 이송·이첩 비중이 높고 직접 처리하는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음부즈만위가 전체 고충민원 중 직접 처리한 민원 비율은 9.4%로, 2021년 10.7%, 2022년 11% 대비 감소했다.

음부즈만위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변호사 3인의 법률 자문, 중앙정부 질의 등 다양하고 철저한 방법을 통해 민원을 엄중하게 여기며 직접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최초의 민원은 위원회 자체 고충민원 접수 기준에 따

라 해당 부서로 이송·이첩해 조사하도록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직권 감사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음부즈만위는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2건(올 7월 기준)을 직권 감사로 전환해 감사를 실시했다”며 “향후에도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동일한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직권 감사를 시행해 역울한 시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단지 8곳 선정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시 내 아파트 8곳을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어린이집, 유

치원, 초등학교와 같은 어린이 시설이 도보권 내에 위치하고, 단지 내에는 안전시설인 CCTV와 어린이놀이터·작은 도서관·주민카페 등 육아 지원 및 주민 공동시설이 조성된 30세대 이상 서울시내 아파트를 인증해 인센티브를 제

공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받은 곳은 ▲구로구 향동하버라인3단지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녹번역e편한세상개솔 ▲은평구 DMCSK뷰아파트 ▲강서구 우장산아이파크e편한세상 ▲강서구 강서금호어울림퍼스티어 ▲동대문구 휘경SK뷰아파트이다.

/김현정 기자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물개 수신”...우크라이나, 북한군 감청 공개
▲로마발 중선전행 보잉 787여객기, 이륙 직후 엔진화재로 회항 /사진 뉴시스

▲美 대선 결과 주요국 대응 동향 파악... “재경관 소통 강화”
▲트럼프 장남 “우크라이나 용돈 끊기기 38일 전” 조롱



▲중국, 올해 통계연감 발표... 지난해 인구 전년비 208만명 감소
▲대만, 美 무기 대량구매 검토... “비공식 논의 진행” /사진 뉴시스



단백질시장 1위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가보니
L1



Life

한미약품
개량·복합신약
출시 속도
L2



의류산업 순환, 책 1만권 기부 ESG에 전계열사 ‘한마음 한뜻’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한세에스24홀딩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김동녕 한세에스24홀딩스 회장의 말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한세에스24홀딩스의 기원은 1982년 한세실업 설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어 2009년, 온라인 서점 예스24를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다. 같은 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지금의 한세에스24홀딩스로 재탄생했다.
현재 의류 제조자 개발 생산(ODM)기업인 한세실업, 패션 브랜드 한세엠케이, 인터넷 서점인 예스24(YES 24), 교육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아출판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한세에스24홀딩스가 본 불확실한 상황
한세에스24홀딩스가 정의한 불확실한 미래 첫 번째는 환경오염이다. 2000년 초 ‘패스트 패션’으로 산업군이 변화하면서 패션산업은 산업군 중에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계가 됐다.

다음은 저출생이다. 한세에스24홀딩스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 연간 출생아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70년 한국은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세에스24홀딩스는 그룹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의 해결에 동참하고자 특별 전담팀(TF)을 구축하고 기업 차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정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금 다가온 위협 속, 목표는 하나였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가치 실현을 위해 계열사가 함께 나섰다.

◆한세실업, ESG 중 ‘환경(E, environment)’ 실천한다

가장 먼저, 글로벌 의류 ODM 기업인 한세실업은 ESG 경영 실천 방안으로 의류 산업 순환 시스템 체계 구축에 나섰다.

한세실업은 지난 2022년부터 주요 해외 봉제법인을 중심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매 ▲바이오 연료 사용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니카라과와 미얀마 법인은 전체 에



김경 한세실업 대표(오른쪽)가 지난달 2일 2024 K-ESG 경영대상에서 2년 연속 ‘종합 ESG 대상’ 수상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세실업



한세엠케이 뉴욕연수에 참가한 직원들이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한세엠케이

불확실한 경제 속 지속가능성장 추구 환경오염·저출생 우려에 해결 앞장 ESG경영 실현 위해 전 계열사 동참

한세실업, 태양광 설치 등 탄소중립 한세엠케이, 직원 복지프로그램 강화 생산공정 디지털화·폐기물 감축 성과 한국ESG기준원 평가서 A등급 획득

너지 사용량 중 각 23%, 57%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해 519톤 CO₂e(이산화탄소 환산량)에 달하는 탄소 배출을 절감했다는 게 한세실업 측 설명이다.

이 외에도 한세실업은 글로벌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활동도 진행한다. 베트남 법인은 지난 2017년부터 지역 초등학교 100개교에 1만권의 책을 기부하고 있다. 서울 본사는 직원들의 개인 소장품을 사내 경매를 통해 판매한 뒤,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국내 다문화 아동에게 기부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한세실업은 지난달 2일 동아일보 K-ESG 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K-ESG 경영대상’ 기업부문 ‘종합 ESG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세엠케이, ESG 중 ‘사회(S, Society)’에 집중

패션 브랜드 한세엠케이는 사회 부문의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춰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5년 이상 근속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세실업 베트남 현지 공장 방문 기회를 제공한다. 우수사원에게는 뉴욕 연수의 기회가 부여된다. 이 외에도 직무 및 어학 교육비를 지원하고, 예스24 전자도서관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한세엠케이에 따르면 생일을 맞이한 직원에게 당일 유급 휴가와 함께 온라인 서점 예스24 상품권을 지급한다. 아울러, ‘가정의 날’ 제도를 통해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단축 근무를 시행한다.

장애인 고용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실천한다. 장애 예술인들을 정직원으로 고용해 ‘우주와 나 상상블’ 팀을 구성하고, 정기 연주회와 다양한 사내 행사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한세에스24 그룹 ‘2024년 ESG 평가’… 종합 A등급 획득

한세실업과 한세엠케이의 이처럼 다양한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했다.

한세에스24그룹은 지난달 28일 한국ESG기준원이 주최한 ‘2024년 ESG 평가’에서 역대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획득했다. 평가는 상장사인 ▲한세에스24홀딩스 ▲한세실업 ▲한세엠케이 중심으로 이뤄졌다.

한세에스24홀딩스는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배구조 부문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이사회 중심 경영 구조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전문가 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 중장기 배당 정책을 수립하는 등 주주환원 노력을 지속한 게 주효했다는 게 한세에스24홀딩스 측 설명이다.

한세실업은 작년보다 한 단계 높은 A등급을 받았다. 특히 올해 실시한 온실가스 데이터에 대한 제3자 검증 방식과 더불어 기후 시나리오 분석과 같은 기업적 노력이 높은 등급을 획득으로 이어졌다.

이 외에도 한세에스24홀딩스에 따르면 자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햄스(HAMS)’를 바탕으로 생산공정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 폐기물 감축에 나선 점도 고려됐다.

한세엠케이는 작년보다 두 단계 상승한 B+등급을 획득했다. 실제 한세엠케이의 유아동복브랜드 ‘모이물론’은 지난해 국립공원공단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 1월 10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다.

해마다 한세에스24그룹의 다양한 활동들이 점차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김석환 한세에스24홀딩스 부회장은 “한세에스24그룹이 받은 이번 평가는 그룹이 실천하고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의 다양한 ESG 추진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세에스24그룹의 전계열사가 ESG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중동 원정 2연전’ 흥명보호 소집되는 유럽파들, 맹활약 후 합류 /사진 뉴스스
▲헝크 오현규, 위니웅전 교체 출전…그라스호퍼 이영준은 2호 도움

▲EPL 레스터, 맨유에 3-0 ‘아쉬운 패배’…첼시·아스널은 1-1 무승부
▲손흥민 풀타임에도…토티넘, 승격팀 입스위치에 1-2 패배



▲‘황인범 시즌 2호골’ 페예노르트, 알메리에 4-1 대승
▲한국 주니어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서 금메달 7개 합작 /사진 뉴스스